

2020.08.27 오후 2시

제15회 양돈연구포럼

한돈 산업의

공적 가치와 사회적 책임

주최 (사)한국양돈연구회

후원 (사)대한한돈협회

www.kpirs.or.kr



[퓨리나 슈퍼맘 케어 500] Upgrade
부만 저 7일 부만 흥 3일 총 10일가의 세심한 관리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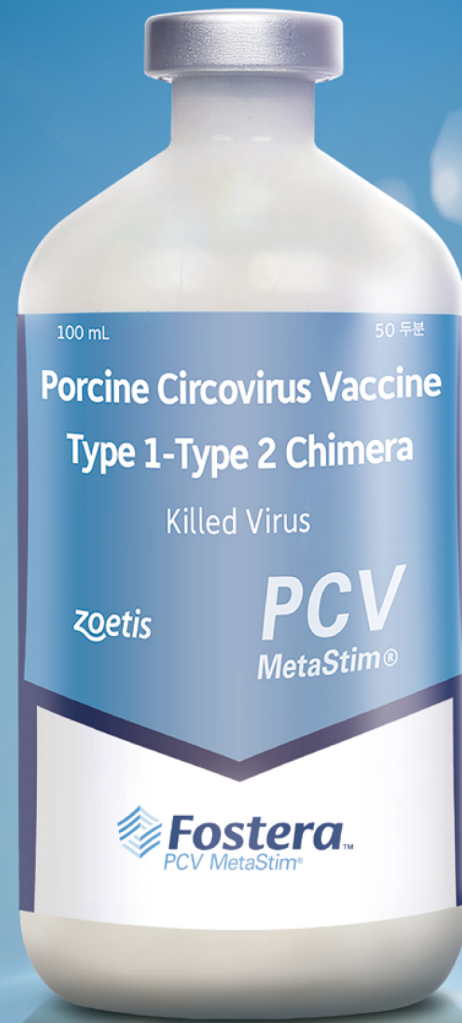
분만 전 7일 분만 후 3일, 총 10일간의 세심한 관리와
한층 더 강화된 영양으로 모돈의 변화를 경험해 보세요.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퓨리나사료
www.purinafeed.co.kr

퓨리니®, 차우®,와 체커보드® 상표는 네슬레 퓨리니 및 케어 회사의 등록상표입니다.

zoetis



포스테라 PCV 메타스팀주,
레스피슈어-원으로
써코와 마이코로부터 농장 수익을 지키세요!



Fosterera™
PCV MetaStim®

Reference

1. US Patent: US9,126,685 B2, Sep. 8, 2015. 2. Park CH, Jeong JN, Choi KH, Chae CH. Efficacy of a new bivalent vaccine of porcine circovirus type 2 and Mycoplasma hyopneumoniae (Fosterera PCV Mh) under experimental conditions. Department of Veterinary Pathology, College of Veterinary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3. DURATION OF IMMUNITY TO MYCOPLASMA HYOPNEUMONIAE FOLLOWING INTRAMUSCULAR ADMINISTRATION OF AN EXPERIMENTAL PCV Mh VACCINE M. Smutzer BS, G. Nibbel MS, J. Johnson DVM, Y. Diamond PhD, L. Taylor MS, M. Sandrick DVM PhD Zoetis Inc, Veterinary Medicine Research & Development, Kalamazoo, MI.

나라장터 식별번호 **23797223** ₩110,000

한국조에티스(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2 T412 13층 / www.zoetis.kr

제품문의 : 02-2627-9700

LS-META202101-ad-03



‘다비’의 나눔이 만드는 아름다운 세상

국내 최고 품질/최대 규모의 돼지육종기업 - 다비육종은
1983년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하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돈산업 발전을 위한 업계 후원,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 사업,
함께 사는 사회를 위한 사회복지 단체 후원 등
다비육종은 오늘도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장학사업 후원 국당축산학교 교육연구재단 /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여명학교, 거레열 지역아동센터 /
광선초등학교 /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 / 양돈꿈나무 장학금

사회복지 단체 후원 일가재단 / 한국농선회 / 국경없는 교육기회 / 천마재활원 / 연꽃마을 / 신생보육원 /
새빛공동체 / 기나안복민회 / 동북아평화연대 / 굿피머스 / 작은 통일을 향한 장학모임

www.darby.co.kr

17529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서동대로 7381-8 TEL. 031-672-5660 FAX. 031-672-5566
페이스북 주소 | <https://www.facebook.com/DarbyGenetics>





번식의 선순환으로 시작되는
농장 Re·design | 원·트리플 100

생애 총 산자수
100두

복당 이유 체중
100kg

생산원가
100원 절감

개체관리 기준 마련 | 손실과 회복에 맞춘 영양 균형 | 다산 Risk 보조



건강한 자돈을
위한 스마트한
솔루션

포세리스™

➤ 건강한 출발을 위한 원샷!



- 빈혈과 콕시듐증 관리를 위한
세계 최초 원샷 주사제
- 원샷으로 노동력 절감
- 정확한 용량 투여 가능, 확실한 효능
- 검증된 안전성 : 0.9~3kg 범위 내에서
자돈 체중에 상관없이 1.5mL 접종

세바코리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호수로 220 보정빌딩 702호 Tel: 070-8277-4747 Fax: 02)2203-9491
www.ceva.kr · E-Mail : ceva.korea@ceva.com · 카카오플러스친구 : 세바코리아 검색



발표자 : 이학교 교수

한돈 산업의 공적 가치

농촌,농업(지역사회 균형발전, 상생)
축산(안전한 먹거리, 안정적 공급, 가치공감)
일자리(공유경제와 공공성)

한돈산업- **공적가치 창출**, 지속가능한 산업 ?

I. 한돈산업의 국가경제 및 국민에 기여:

농촌(소득원), 축산(안전한 먹거리), 일자리(공공성) = 대량생산의 편리성

II. 한돈산업의 위기와 기회:

고령화, 대체단백질시장, 환경변화 대응력 미흡, 지역과의 불통

III. 한돈산업혁신 방향 :

생산의 효율화, 정밀화, 가치화(다양화), 지역주민 및 소비자와 가치공감

“우리는 이전까지 시대와 완전히 다른 시대를 지나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경제의 침체와 정세 불안 등 불확실성 지속
Before Corona (BC) / After Disease (AD)
4차산업혁명/기후위기/인구절벽

소비시장의 양극화, 환경 이슈 공감 ▶ 웰빙 & 명품 소비 증대

인구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다품종 소량 생산

SNS의 정착과 IT 기술의 확산

효율적이고 현명한 가치 소비 증대

한돈산업의 공적가치와 공익가치(농민에서 기업가)

<공적 가치 :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설정>

- 식량의 안정적 공급 기능(자급율)
- 경제사회적 고용창출과 사회경제적 산업 기여 (국가총생산 1%)
- 산업 생태계구성의 기여 및 역할 (전후방산업의 연계: 54조, 34만명)
- 소비자와의 가치공유(동물복지, 안전한 축산물)
- 지역주민의 편익 공유(지역공동체 역할, 공존공감)

<공익적 가치 : 이해관계자 및 간접수혜자와의 관계 설정>

- 국민의 레저 및 휴양 (산림, 경종농업 등 : 직불제 등 논리 확보)
- 홍수조절, 기후변화 완충(환경생태계) 등 국익 가치 실현
- 토양 생태계 복원 및 지속가능 농업의 역할(순환농업, 가축사육권)
- 국토의 균형 발전 및 지역 경제생태계(지역내 가치사슬) 역할

Why Invest on Livestock System + Tech.?

- Growing Population

Growth rate more than 2%

- Increase Income

Particularly among urban dwellers

- Changing food preference

Decrease in consumption of grains and increase in animal proteins

- Increase demand in animal-derived products

- Changing production system

Intensification of production monogastric animals, increasing dependence on imported grains

Rise in prices of feed grains related to bio-ethanol program and fuel crisis

- Environmental impact

Increase in environmental pollution and emerging of new diseases



LIVESTOCK
REVOLUTION

선진포크한돈 바른농장

국내 1% 프리미엄 동물복지 한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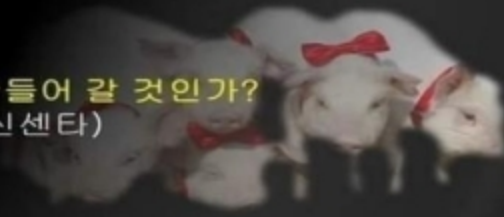
한국축산식품학회-축산물품질평가원 공동주최 한돈 심포지엄

수입돈육 대비 한돈산업 생존전략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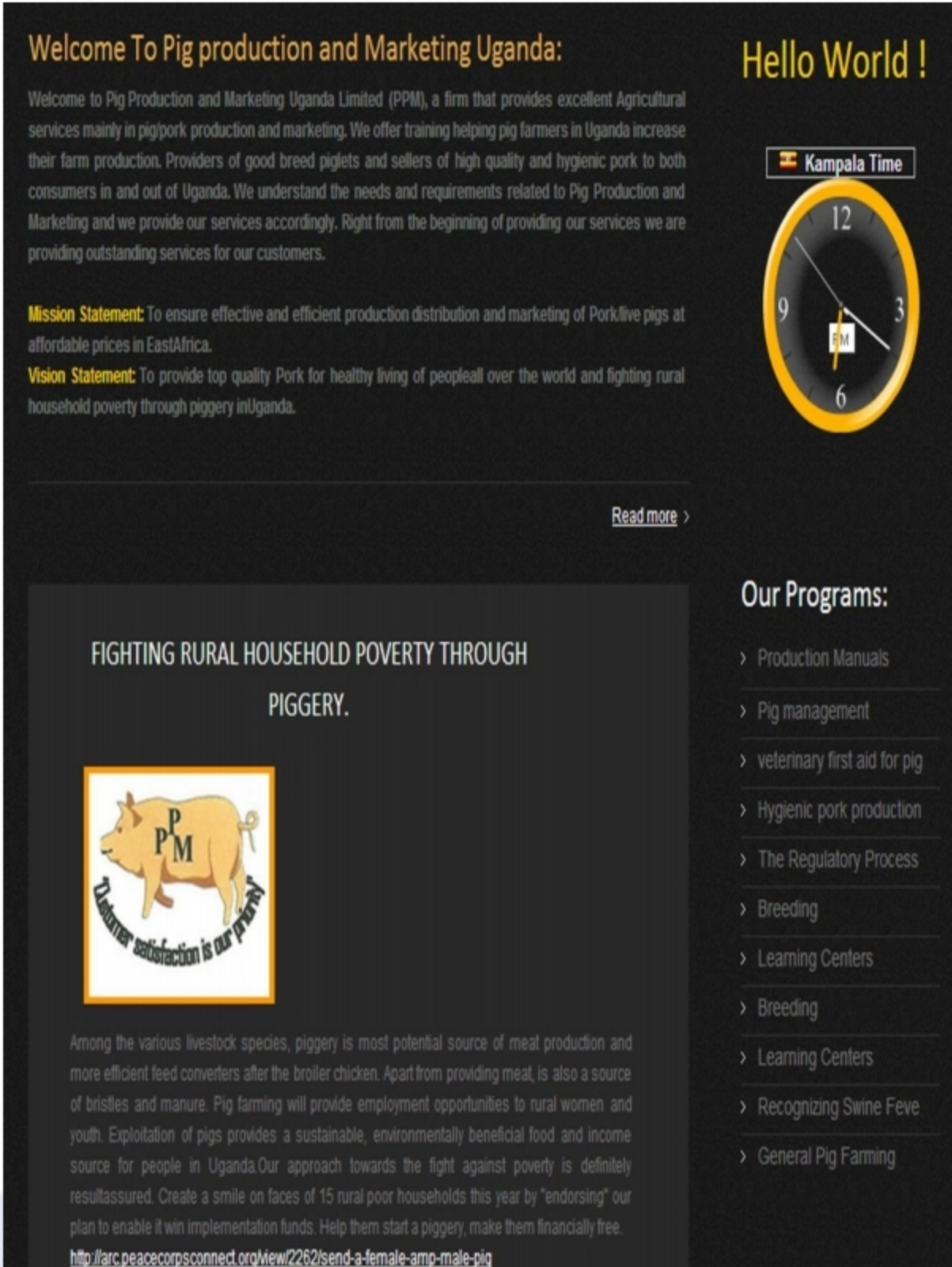
2018년 12월 6일(목), 축평원 대강당, 오후 1시

<발표제목>

1. 국민소득 3만불 시대 이베리코 현상과 한돈업계의 대응 방안
(김재민 실장, 협동조합 농장과 식탁)
2. 더 맛 있는 돼지고기 시대로의 패러다임 시프트
(김태경 박사, 건국대 축산경영연구소)
3. 3定 4A로 수입돈육과 차별화 하는 일본 양돈
(안기홍 소장, 안기홍양돈연구소)
4.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한돈품질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문성실 박사, (주)선진 Meat & Processing 혁신센터)
5. 축산물등급제를 활용한 한돈 품질 향상 방안
(김병도 본부장, 축산물품질평가원 평가R&D)



Vision: 최고품질의 돼지고기를 공급함으로써 건강한 삶을 제공하고 개도국의 농촌에 자돈을 공급함으로써 빈곤과 싸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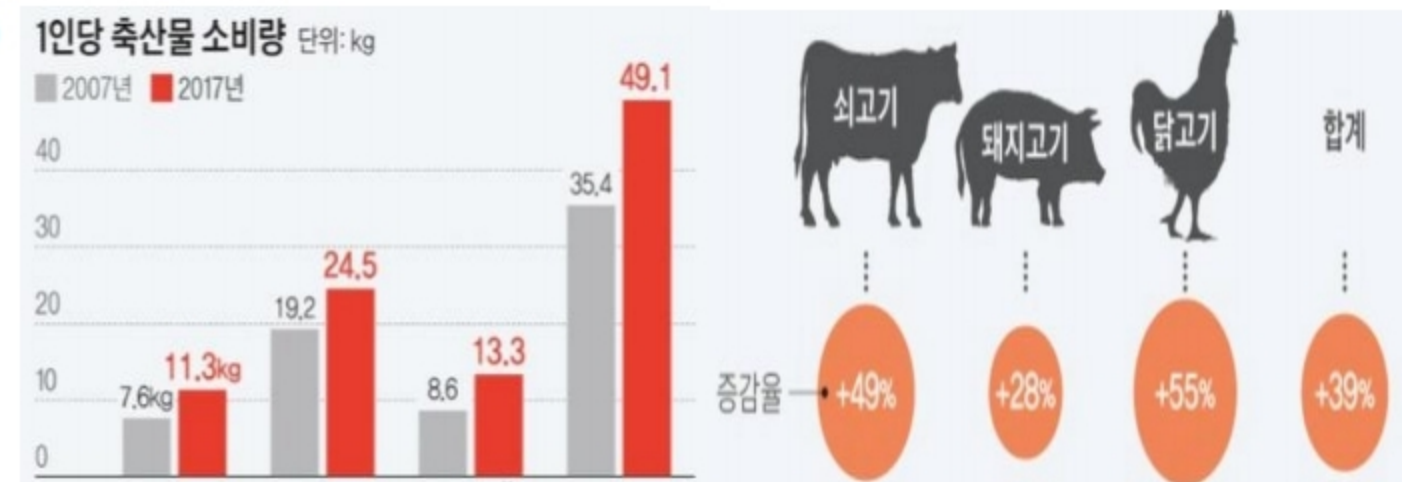
I. 한돈산업의 국가경제 및 국민에 기여 : 축산업과 연관산업 현황

- 축산업은 연관산업('12년 기준)을 포함하여, 약 60조2천억 원의 규모를 나타내고 있으며, 고용유발효과 측면에서 56만5천명을 나타내고 있음.
- 전체 농업생산액 중 축산분야가 39% 차지하고 있음 ('07) 32% → ('19) 39%
- 축산업 생산액 10년간 46%p 증가 ('08) 13.6조 → ('19) 19.8조

축산업과 축산연관산업의 규모 ('12년 기준)

구분	축산업 (A)	연관산업 (B)	합 (A+B)
생산액(조원)	16.0	44.2	60.2
종사자수(만명)	24.4(자체)	32.1(타산업유발)	56.5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3)



"1인당 축산물 소비량". 중앙일보

영농형태별 농가소득 비교(2019)

단위: 천원

축산	논벼	과수	채소	특용작물	화훼	일반발작물
75,466	30,246	35,273	28,844	27,163	31,866	28,024

자료 통계청, 2019, 농가경제조사.

•축산업 생산액 (조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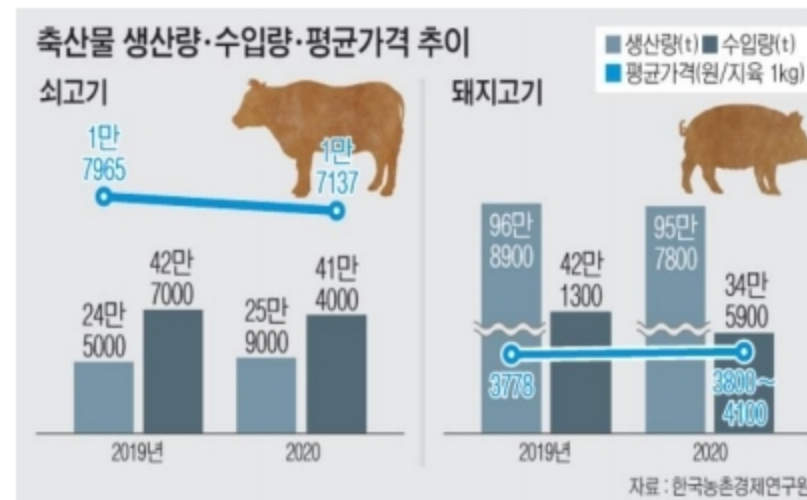
('07) 11.3 → ('19) 19.7

[한돈] ('07) 2.0 → ('19) 7.3

• 한돈 생산농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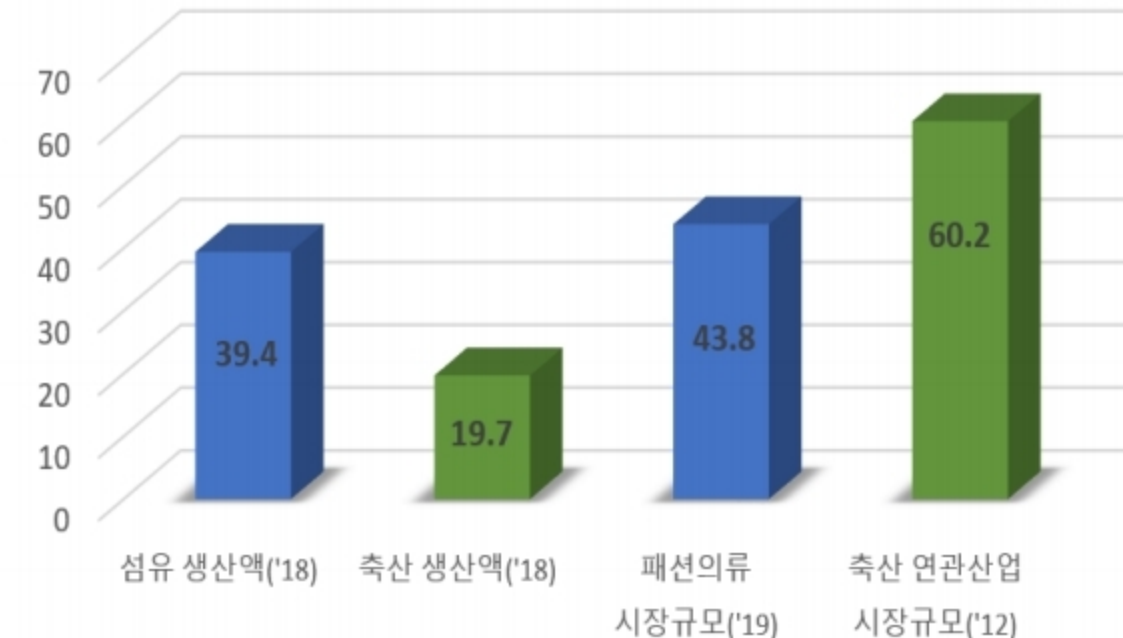
('90) 13만호 → ('19) 0.6만호

• **농가당 생산액 (11.5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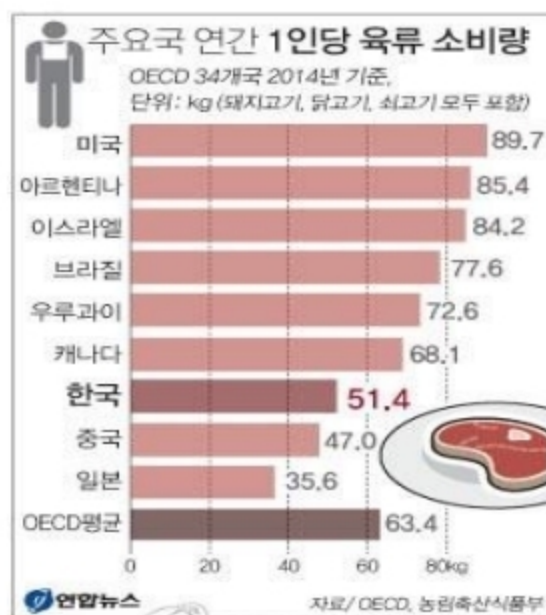
축산업 시장 규모의 경쟁력 비교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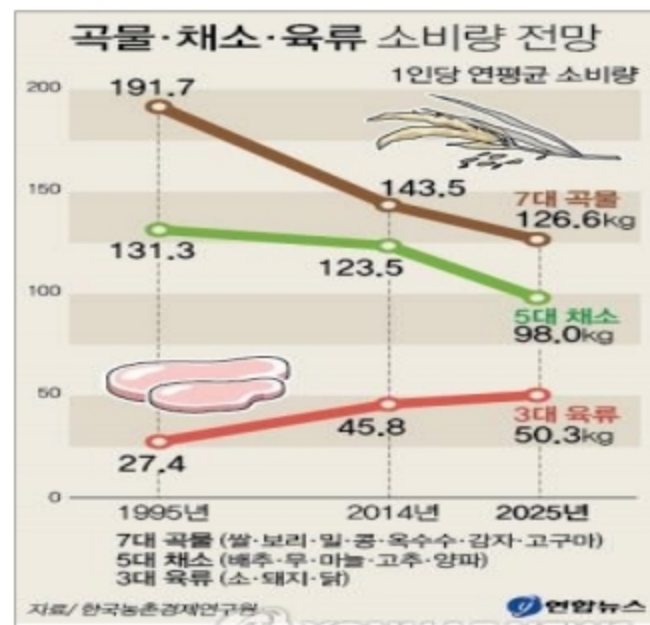


축산업 규모 확대 추세 : 양적성장 패러다임의 전환 시점

농업생산 10대 품목 변화



(연합뉴스 2016)



(연합뉴스 2016)



(한국농어민신문 2016)

축산업 생산규모의 변화(농업 내 축산업 생산액 비중 증가)

- 축산업은 농업 내 10대 품목 중 5개 품목을 차지하는 등 농업 내 가장 큰 비중을 가지고 있음 (축산업 비중: 국내총생산액의 1.0%,('18) , 한돈산업 : 축산생산액의 36%('18))
- '90년 이후 10년간 여타 농산물의 생산 유발액이 2.4배 증가한 데 비해 축산업은 약 4배 이상의 큰 증가를 나타내고 있으며, 농업내 축산업 비중은 증가 추세 ('17: 42%, '19: 39%)

- GDP 농업 비중(%) : 점차 감소하는 추세
('70) 23.2 → ('90) 6.8 → ('09)4.6 → ('18) 2.8
- 축산업 비중(%) : 농업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증가 추세
('90) 22 → ('00) 25 → ('09) 35 → ('19) 39
- 축산업의 생산 유발액
('90) 9.1조원 → ('15) 58조원 600% 이상 증가

축산업의 생산유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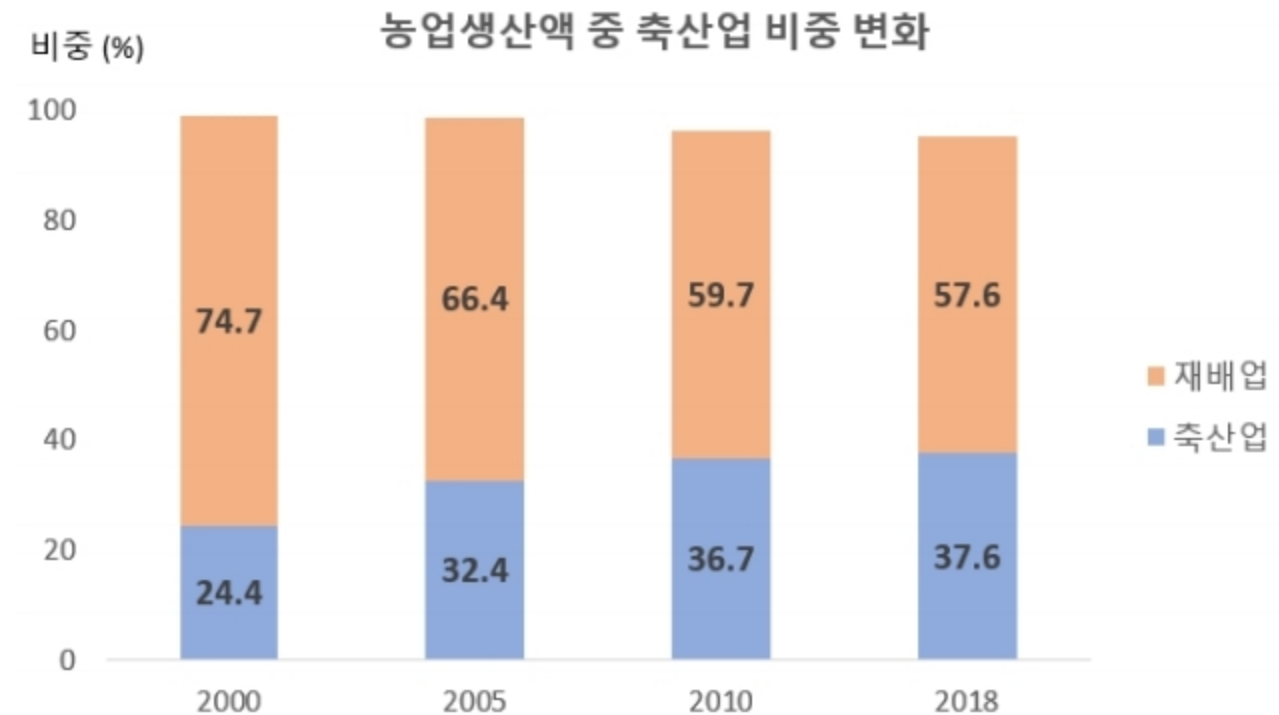
(단위 : 조원)

구분	'90 (A)	'10 (B)	B/A
축산업	9.1	37	406.5
농림수산물	22.5	55	244.4

자료 : 농촌경제연구원, 2012, 축산업후방연관산업 구조와 발전방안.

농업생산 10대 품목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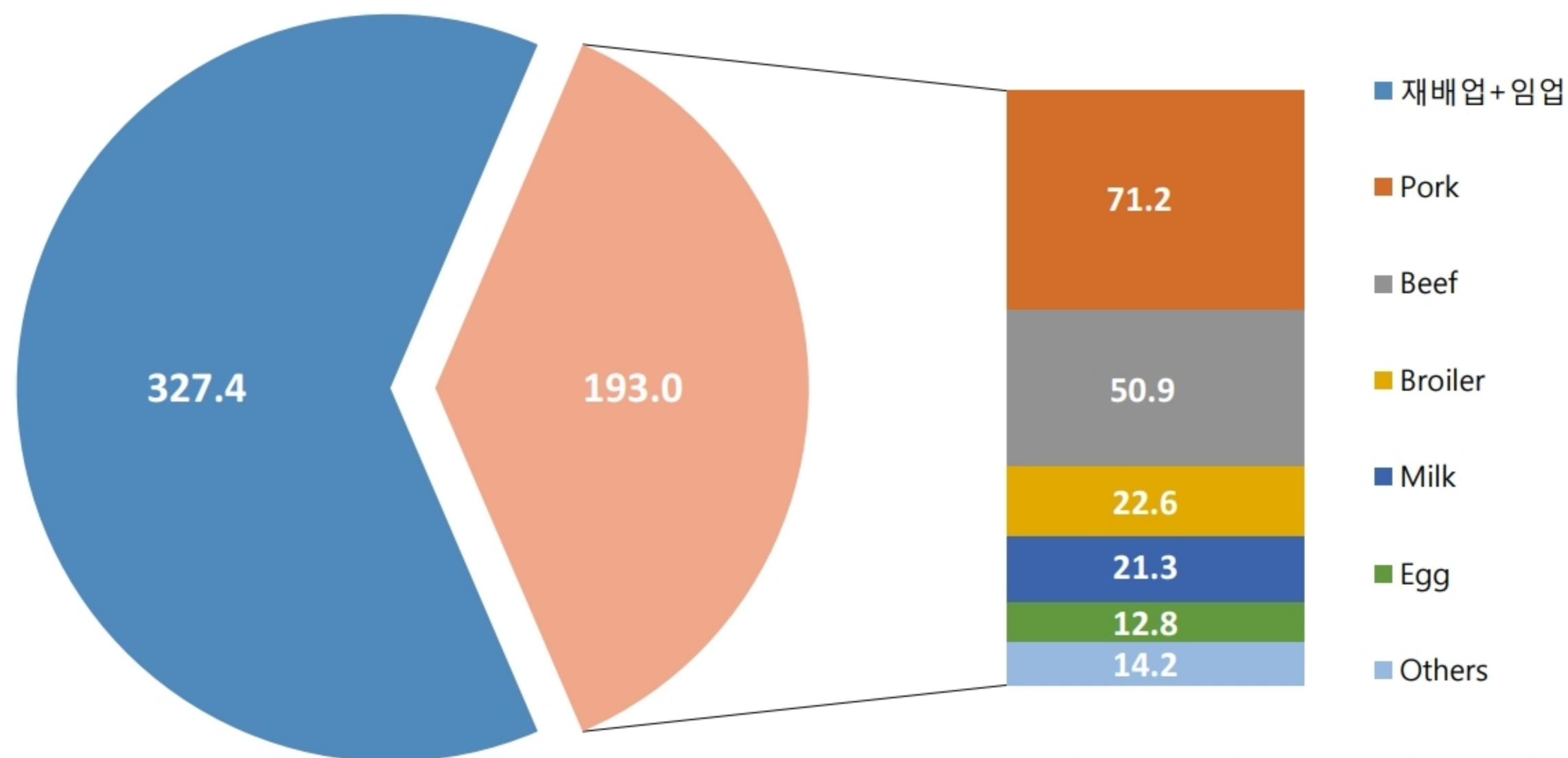
1970년	2000년	2017년
1.미곡 2.벼짚 3.고추 4.쌀보리 5.닭 6.고구마 7.계란 8.겉보리 9.한육우 10.돼지	1.미곡 2.돼지 3.한육우 4.마늘 5.우유 6.닭 7.사과 8.고추 9.계란 10.배추	1. 양돈 2. 미곡 3. 한우 4. 우유 5. 닭 6. 계란 7. 사과 8. 딸기 9. 고추 10.인삼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업생산액 및 생산지수』, 각 년도.

축산부분 생산액(19.73조 원)

2018 농림업 총생산액(52.52조 원)



- 통계청, 2018 농산업 총 생산액
- 단위 : 천억 원(경상가격)

축산업의 총 GDP생산액('18)

(축산업 생산액 * 3.6배 추정)

70.2조 원

후방산업

사료,개량,약품,시설
기자재,동물병원

110%

21.72억

축산업

축산물을 직접
생산하는 사양업

19.73 조원

전방산업

유통
- 도축, 가공, 판매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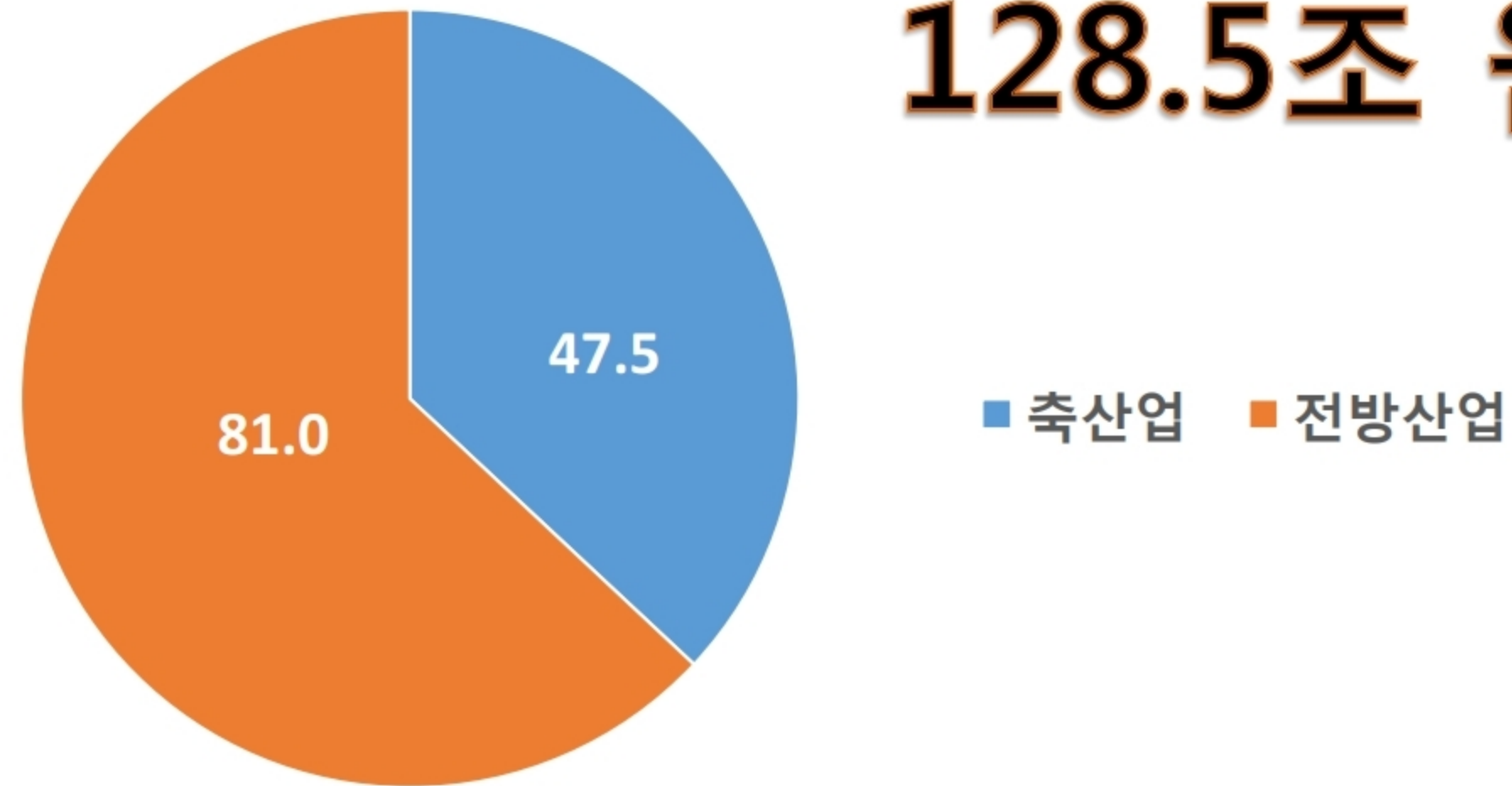
146%

28.72조

- 축산업은 축산시설/기자재, 약품, 사료 등의 후방산업과 종축 생산/개량, 생산/번식 등의 생산 및 도축, 가공/생산, 유통, 소비 등을 아우르고 있으며, 또한 사양기술, 분뇨처리, 기후변화, 문화활용, 안전성 및 바이오 융합 등의 기술이 연관되는 방대한 영역을 다루고 있음.

축산업 및 전방산업의 총 생산유발액 (’18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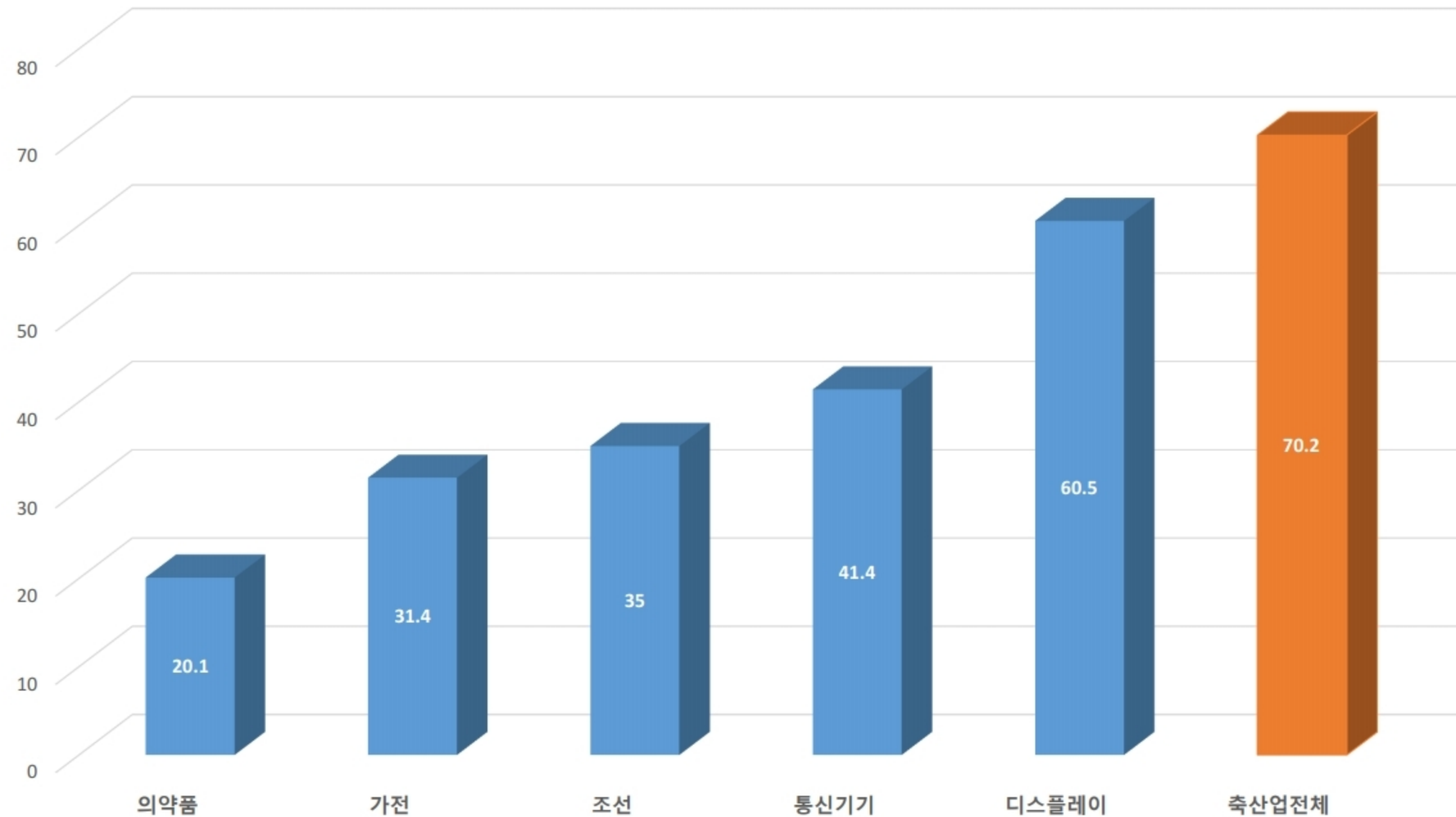
축산 관련 생산유발액(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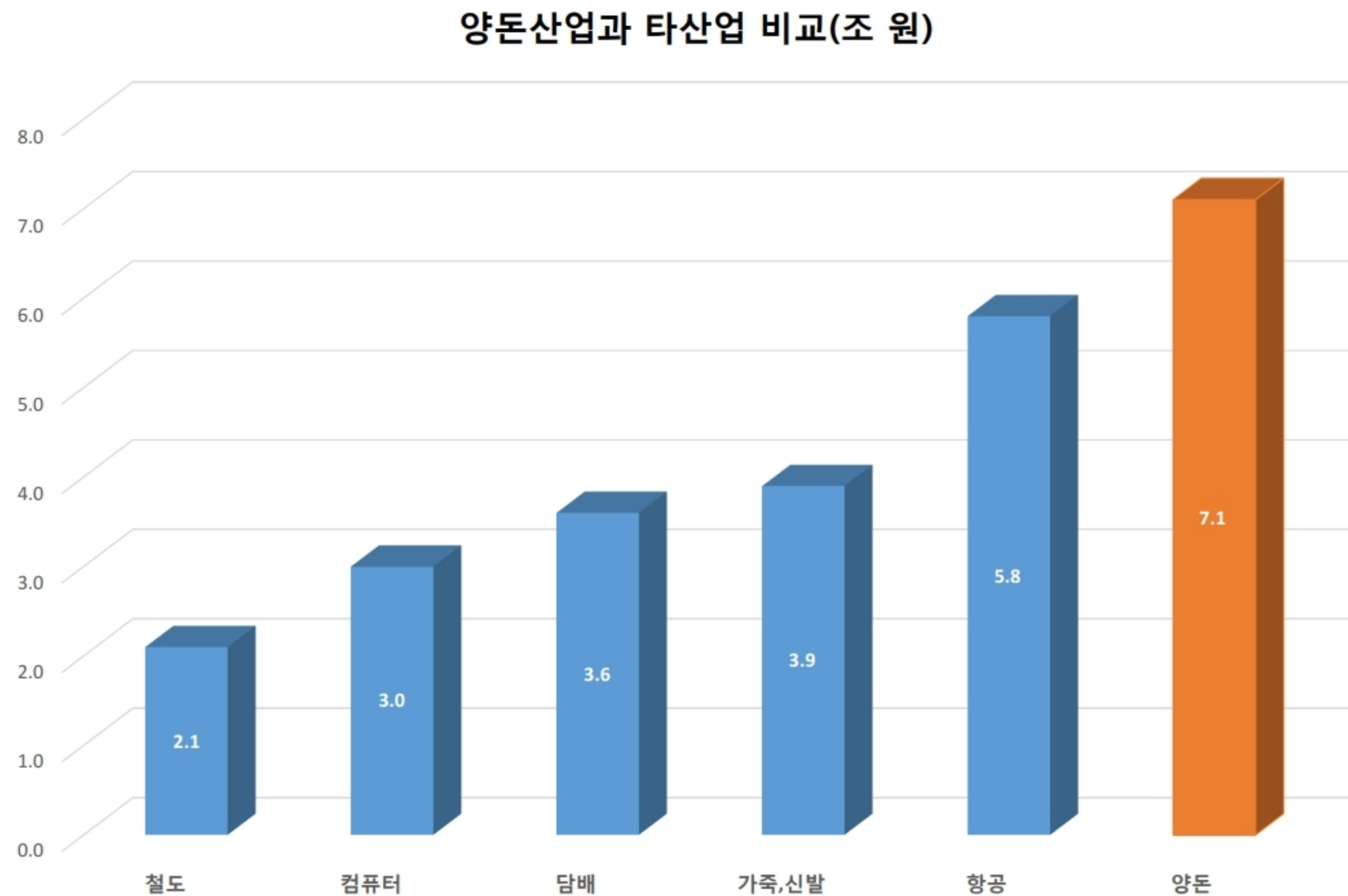
- 축산업 생산유발계수: 2.48 적용
- 축산전방산업 생산유발계수: 2.82 적용

축산업(전후방포함)와 타산업 생산액 비교('18)

축산업(전후방포함)과 타산업 비교(조 원)



양돈산업과 타산업 시장규모 비교('18)



양돈산업 현황

- 양돈 생산액은 지난 5년간 42% 성장 (연 8%) 2013~2018년 기준
- 양돈 사육 고용인력은 약 22,000명으로 추정(사육두수 500두 당 1명)

연도/항목	'13	'15	'17	'18	'19	'20. 3
양돈 생산액, 조	5.0	7.0	7.3	7.1	-	-
양돈 생산액/농림업 생산액 %	9.7	13.8	14.4	13.5	-	-
양돈 생산액/축산업 생산액 %	30.9	36.6	36.3	36.0	-	-
양돈 농가 수, 천호	5.6	4.9	6.3	6.2	6.1	6.2
돼지 사육두수, 천두	9,912	10,187	11,273	11,333	11,280	11,208
양돈 사육 취업자수(p), 천명	20	20	23	23	23	22
양돈 농가 당 생산액, 억 원	8.9	14.3	11.6	11.5	-	-

(p): 추정치

양돈 배합사료 현황

- '19년 배합사료 생산실적은 2,086만톤이며, 약 10조의 시장 규모
- '19년 양돈 배합사료 생산실적은 685만톤이며, 약 3.8조의 시장 규모

연도/항목	'15	'17	'18	'19
양돈배합사료 생산실적, 만톤	609	637	655	685
양돈/총배합사료 생산 %	31.6	33.2	32.5	32.8
양돈배합사료 가격, 원/kg	514	468	479	562
양돈배합사료 시장규모(p), 조	3.1	3.0	3.1	3.8
양돈배합사료/양돈생산액 %	44.7	40.8	44.2	-

배합사료 가격은 매년 12월말 공장출고가격 기준
(p): 추정치

축산업 현황 : 축산물 수요 변화

KBS NEWS

한국인 육류소비량 50년새 9배 증가, 쌀 소비는 반토막

입력 2016.08.15 (16:38) | 수정 2016.08.15 (16:50)



50년 새 한국인들의 육류 소비량은 9배 이상 급증했지만 쌀 소비량은 반토막이 났다.

농협 축산경제리서치센터가 오늘(15일) 발간한 'NH 축경포커스' 최신호에 따르면, 연간 육류 소비량은 평균 47.6kg으로, 1970년의 5.2kg에 비해 9배 이상

SBS NEWS

"한국인 1인당 우유소비 43년새 45배 증가"

작성 2015.05.12 06:09 수정 2015.05.12 10:07 조회 254

한국인의 1인당 우유 소비량이 1970년 1.6kg에서 2013년 71.6kg으로 44.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리서치센터는 이런 2013년 1인당 우유 소비량은 주식인 쌀 소비량

의 절반 수준인 35.5kg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연합뉴스

세계 육류생산 2029년까지 12% ↑...닭고기가 증가세 이끌어

송고시간 | 2020-07-17 10:37

(서울=연합뉴스) 김계환 기자 = 세계 육류 생산량이 2029년까지 1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16일(현지시간)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OECD와 FAO는 이날 내놓은 공동보고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올해 육류 생산이 부진하겠지만 추세적인 증가세를 멈추게 하진 못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내다봤다.

OECD와 FAO는 올해 육류 생산이 저점을 찍은 뒤 205년까지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면서 중국과 브라질 등지에서 생산량을 늘리고 있는 닭고기가 전체 육류 생산 증가세를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1. 축산업 현황 : 연도별 축산물 자급률 변화

상생의 시장경제를 지키는
브릿지경제

신토불이는 옛말... 식탁 점령한 수입 농축산물

입력 2017-07-09 14:39 수정 2017-07-09 16:16



수입산 농축수산물이 한국인의 식탁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과거에는 국산 농축산물 대비 저렴한 가격이 주된 경쟁력이었지만, 최근에는 국산 공급물량이 남아돌아 가격이 하락해도 수입산이 높은 선호도를 바탕으로 승승장구하는 모습이다. 특히 정부가 농축산물 수급 조절을 지나치게 수입에 의존하면서 오히려 국내 시장의 경쟁력을 위축시켰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ChosunBiz **10**
YEARS

추락하는 육류 자급률...돼지고기 수입 증가가 가장 큰 원인

입력 2019.03.28 11: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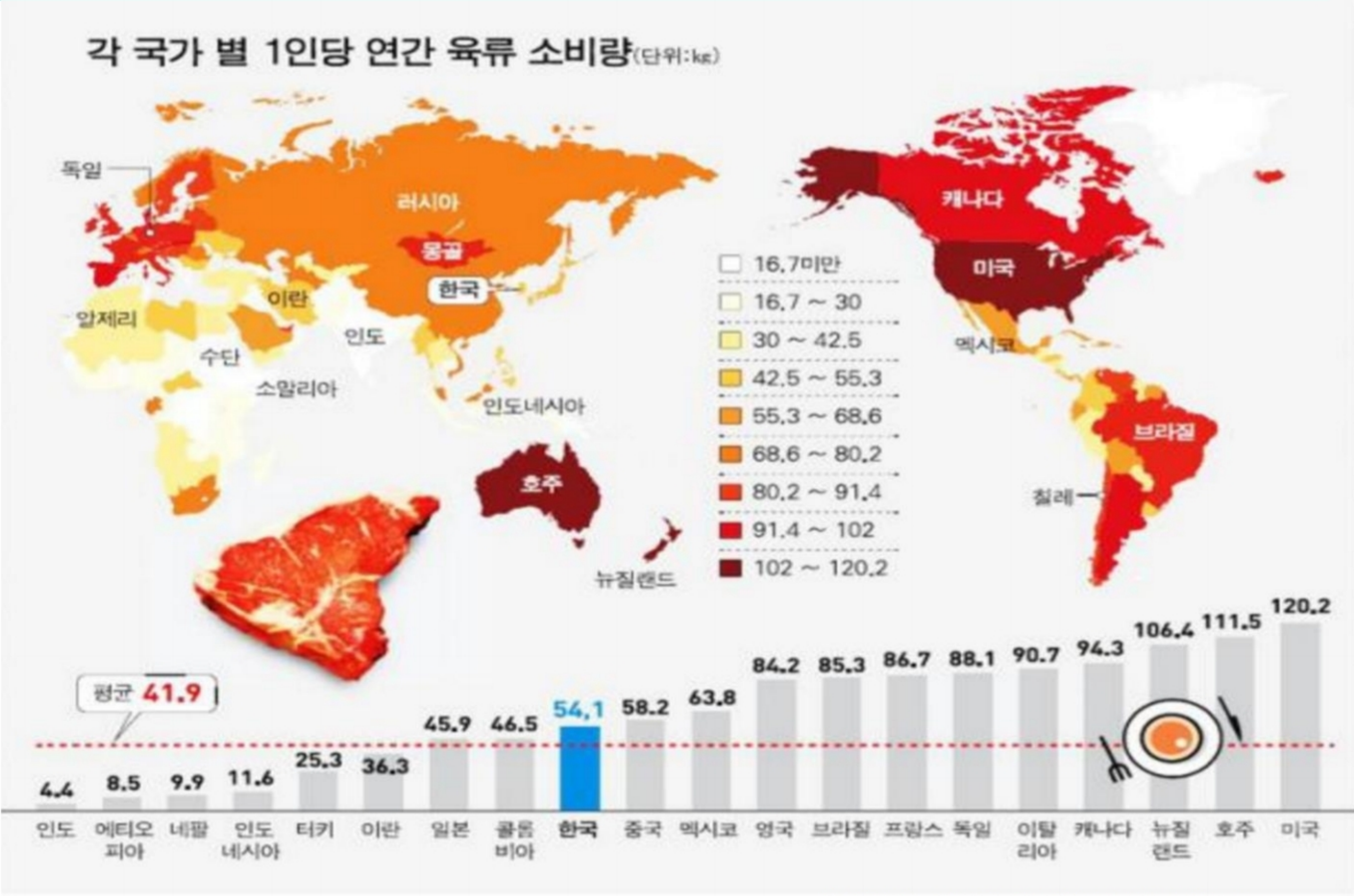
한국인의 육류 소비가 증가하면서 육류자급률이 2000년 78.8%에서 2018년 64.2%로 15%포인트(p)쯤 떨어졌다. 미국·호주·뉴질랜드·EU 등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육류에 무관세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자급률은 2028년 62.2%로 추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28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경제연구원 등에 따르면 한국인의 육류 소비량이 생산량을 초과하면서 필요한 고기를 수입에 의존, 육류자급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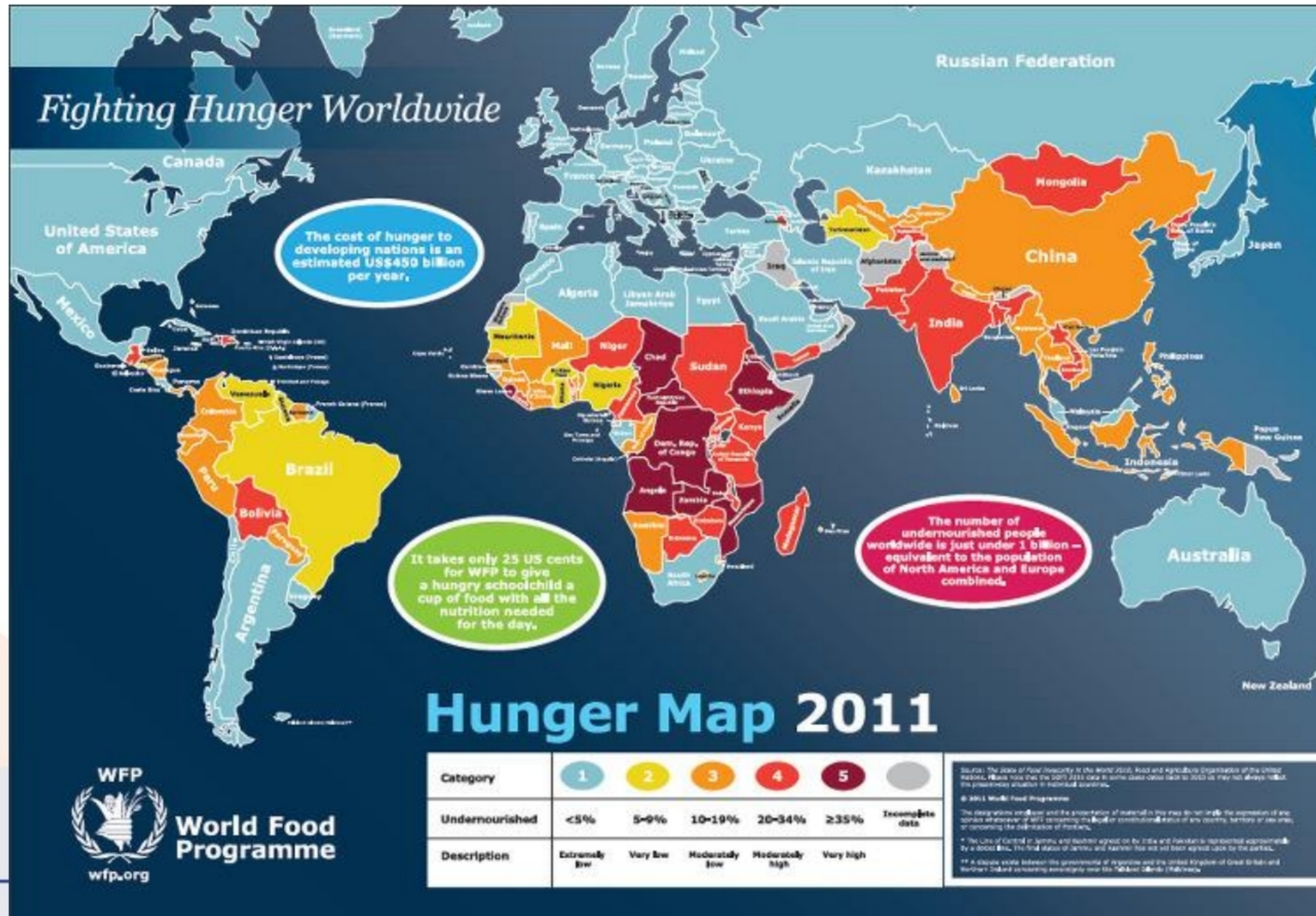
자급률이 하락하는 이유는 육종 및 사육기술의 발전으로 생산성이 향상됐지만 증가하는 육류 소비량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들 기관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한국인 1인당 육류 소비량은 2000년 31.9kg에서 2018년 53.9kg으로 20kg 이상 증가했다. 2028년에는 61.2kg으로 2000년보다 2배쯤 늘어날 전망이다.

연도/항목	'13	'15	'17	'18	'19
1인당 육류 소비량, kg	42.7	46.8	49.1	53.9	55.8(p)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 kg	20.9	22.5	24.5	27.0	28.0(p)
돼지고기/육류 소비량 %	48.9	48.1	49.9	50.1	50.2(p)
돼지고기 자급률, %	80.9	70.3	70.7	67.1	69.7(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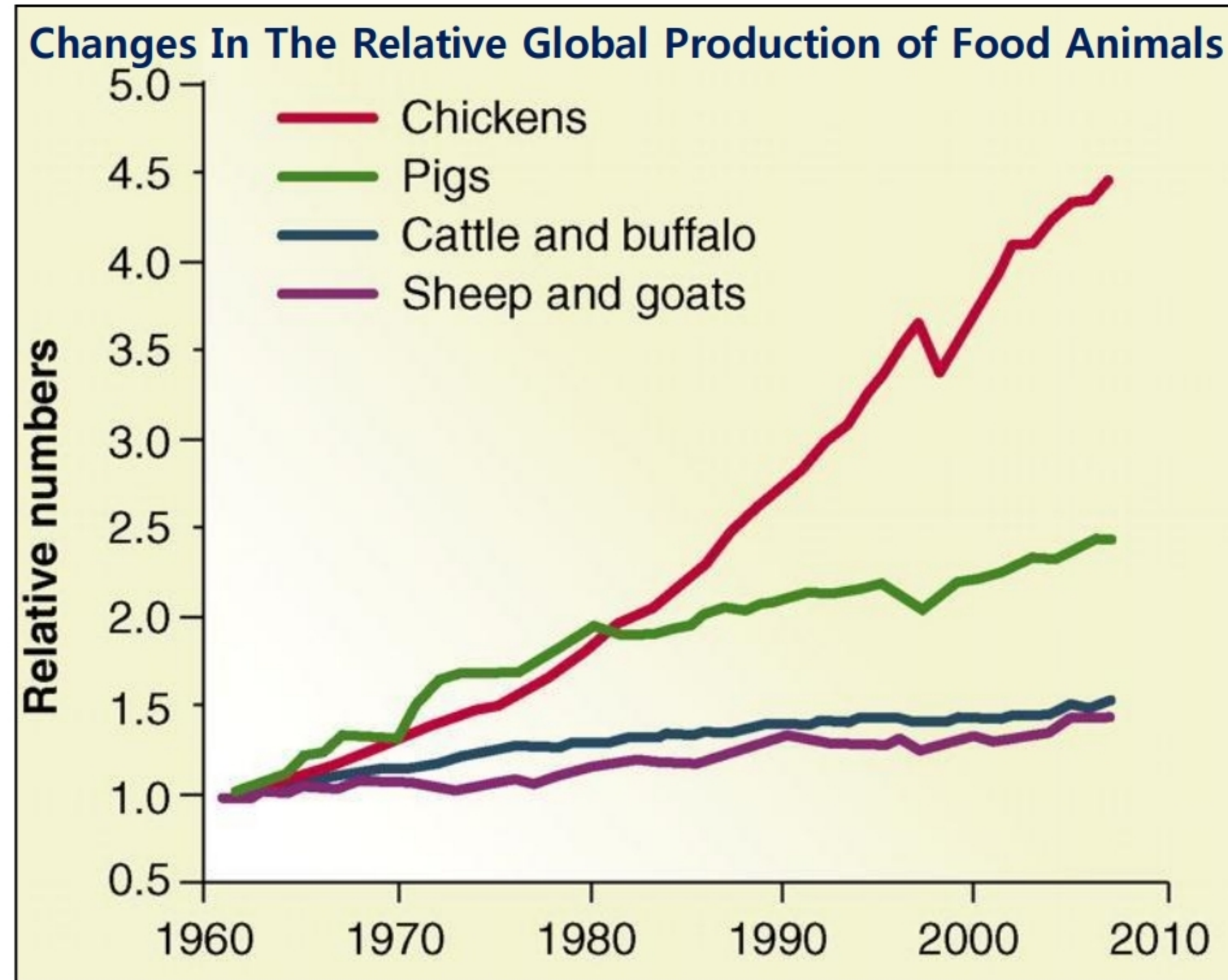
국가별 1인당 연간 육류 소비량



Bottom Bill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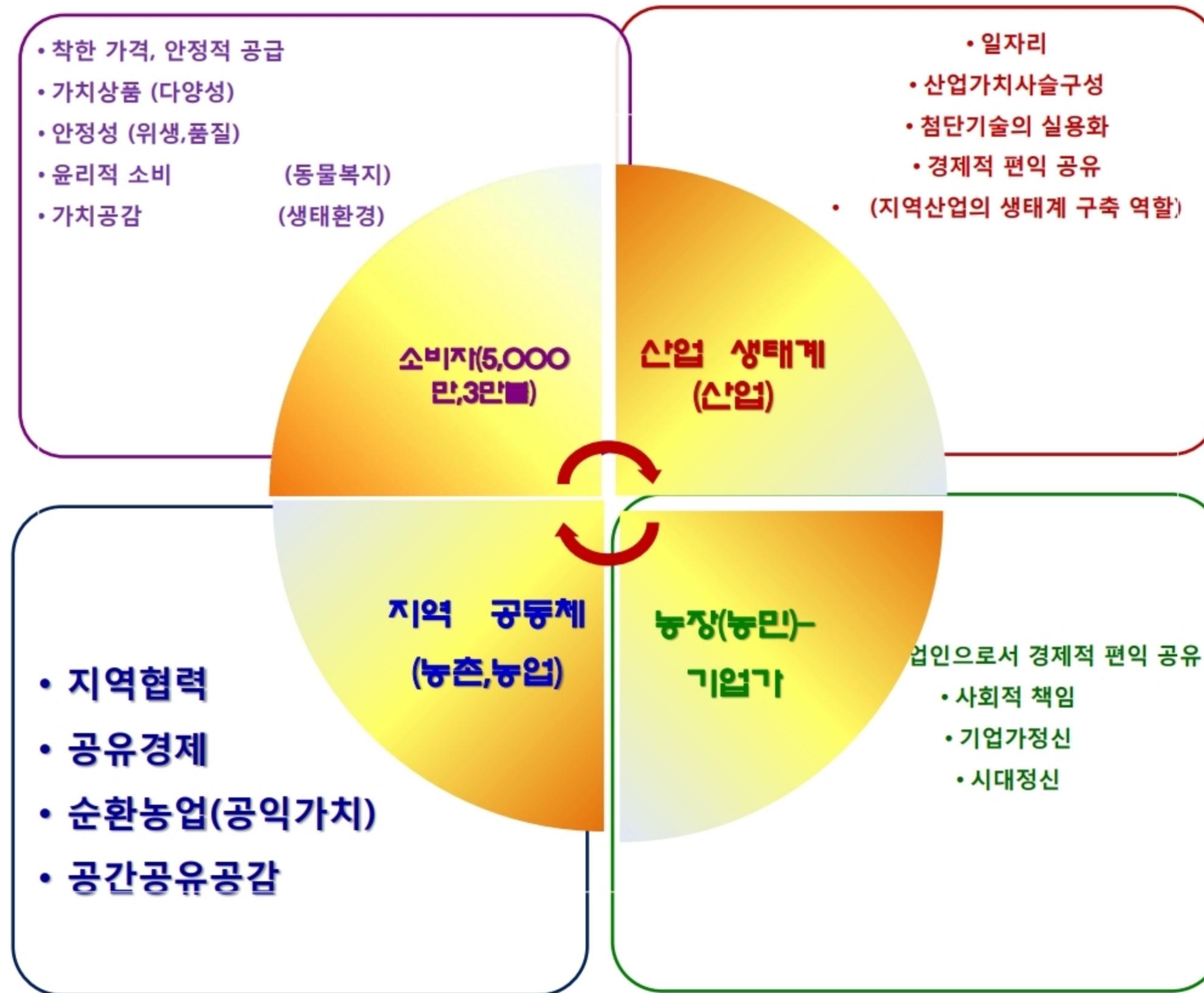


Poultry production is projected to rise the most among the meats over the next decade, as poultry is the most efficient feed-to-meat converter *USDA Long-term Projections, February, 2010*





• 한돈산업 위치



2040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 45%** 농촌 **인구비율 8%** 추락 전망



농번기 부족한 일손 농촌 현실 그대로 반영

일당 6만원에 원정 일손 할머니들
잘못 들었다가 “참변”

경북 봉화 고랭지 근무 일용직 16명
충남 홍성서 새벽 1시에 6시간 이동
탑승자 9명, 불법체류 신분 외국인

경향신문



고랭지 채소 수확
작업을 위해 새벽
길을 달리던 승합
차가 강원 삼척 지
방도 급커브길에서
뒤집혔다. 충남 홍
성에서 오전 1시에
집을 나선 60~70
대 할머니들과
30~40대 외국인노
동자들이 차에서
쪽잠을 자다 4명이
숨지고 12명이 다
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벽과 밤, 멀리 떨어진 일터로 위험하게 장거리 이동하던 ‘고단한 차’에서 일어난 참사였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단종된 일손을 메우고 있는 고령화된 농촌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22일 오전 7시33분쯤 강원 삼척시 가곡면 풍곡리 가곡자연휴양림 인근 지방도에서 15인승 그레이스 승합차가 왼쪽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경사지로 전복됐다. 이 사고로 운전자 강모씨(61·충남 홍성군)와 정모씨(61·여·충남 홍성군), 태국인 7씨(44)와 2씨(34)가 숨졌다.

축산산업 여건

환경 문제, 동물 권익문제, 식량문제

그레타 툰베리 “우리는 대멸종의 시작점에 살고있다

그레타 툰베리는 유엔 연설에서 세계 정상들을 향해 아래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생태계 전체가 무너지는데 각국 정치지도자들은 영구적 경제성장과 같은 이야기만 하고 있다. 감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당신들은 우리 젊은 세대를 실망시켰고, 우리는 당신들의 배신을 깨닫기 시작했다” “미래 세대의 눈이 당신들을 향해 있다. 만약 우리를 실망시키는 쪽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 이라면서 세계 정상들이 당장에 닥친 지구온난화라는 세계적인 문제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자신들의 배만 부르게 만드는 경제성장만을 이야기 한다고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제인구달의 생명사랑 십계명

1. 우리가 동물사회의 일원이라는 것을 기뻐하자
2. 모든 생명을 존중하자
3. 마음을 열고 겸손히 동물들에게 배우자
4. 아이들이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도록 가르치자
5. 현명한 생명 지킴이가 되자
6. 자연의 소리를 소중히 여기고 보존하자
7. 자연을 해치지 말고 자연으로부터 배우자
8. 우리 믿음에 자신을 갖자
9. 동물과 자연을 위해 일하는 사람을 돕자
10.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희망을 갖고 살자.



사람들이 동물의 인지능력에 대해 많이 알게 되면 육식을 멈출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 우리가 채식을 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동물이 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들은 상황을 감지하고 사고하는 것뿐 아니라 행복과 슬픔, 절망 같은 감정을 느끼는 존재예요. 또 채식은 생명을 존중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방법이에요. 육류를 생산하기 위해 숲을 무분별하게 개간해 가축에게 먹일 곡식을 기르고, 집약 농업이나 공장식 축산을 통해 엄청난 화석 연료와 온실 가스를 배출하니까요.

2035년 소고기 95% 사라진 다... '배양육' 대체

다가올 미래에 '인류의 식탁'은 수많은 변화를 맞을 것으로 예측된다. 불과 11년 뒤인 2030년이 되면 소고기와 유제품은 사라지고, 그 자리는 다른 먹거리가 자리를 채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싱크탱크인 '리싱크엑스(RethinkX)'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2030년까지 기존의 축산업과 낙농업의 수요는 현재보다 70%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2035년까지 기존의 소고기와 유제품에 대한 수요는 80~90% 줄어들 것이며, 닭고기는 물론 돼지고기와 같은 동물성 식품 시장 역시 이와 비슷한 궤적을 따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래의 식품 생산 비용은 동물성 제품을 생산하는 것의 절반에 불과한 데다, 기능적 특성이 뛰어나 영양가가 높고 맛도 탁월하다. 보고서는 "미래의 식품 산업은 식품을 통해 얻어지는 심장 질환, 비만, 암, 당뇨병 등으로 인해 해마다 발생하는 1조 7000억 달러의 건강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축산업의 불확실성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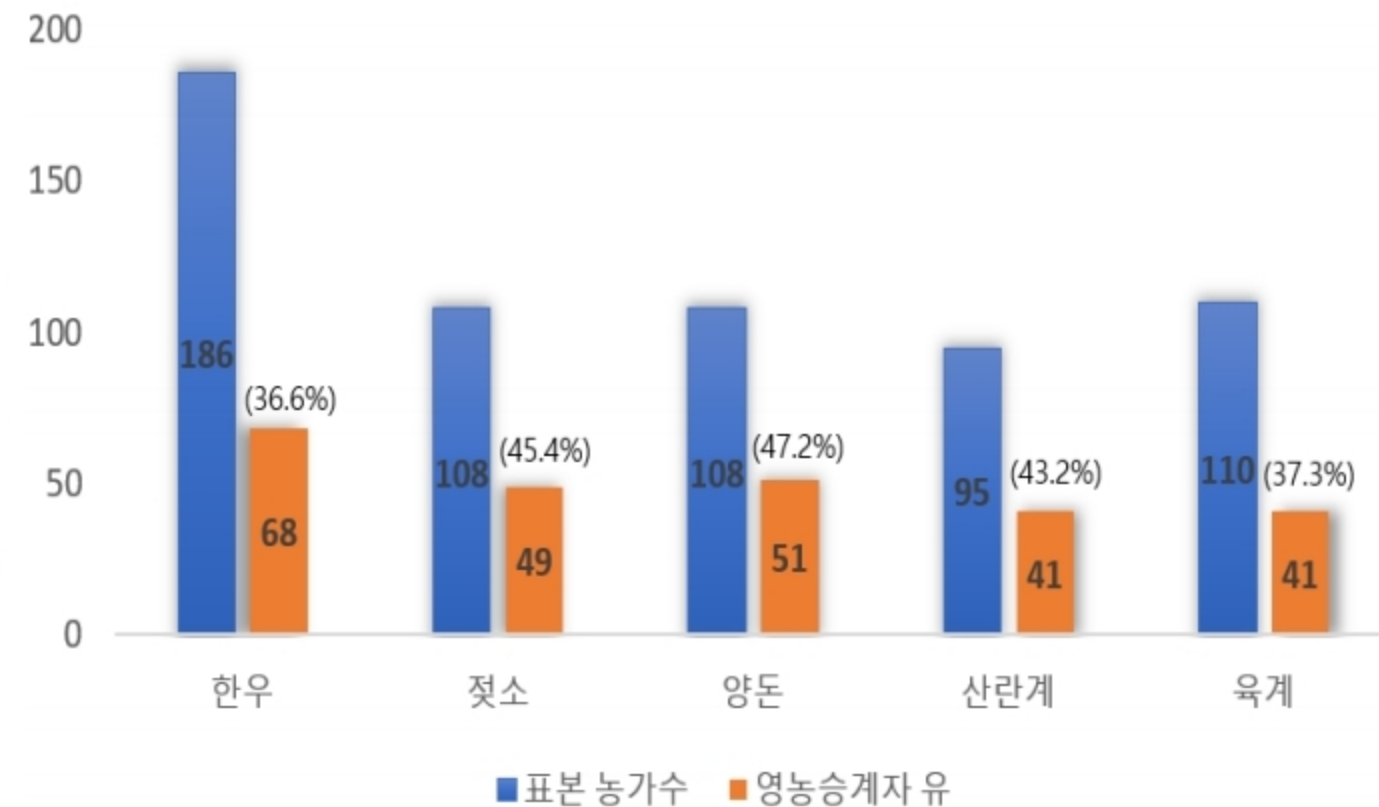
농가수 매년 2만여호씩 감소, 1~2년내 100만호 이하 전망

- 경영주평균연령 : 68.2세 (18년)
- 40세 미만 청년농가수 : (10년) 33,143호 → (18년) 7,624호 → (25년 전망) 3,725호
- 축산업 신규 진입장벽 강화, 지역-소비자 안티 축산인식, 지역양분총량제

축산부문 승계자 확보율(2019, 축산과학원)

구분	합계	영농승계자 유무		영농승계자 현재상황		
		유	무	계	참여중	예정
합계	607 (100.0)	250 (41.2)	357 (58.8)	250 (100.0)	139 (55.6)	111 (44.4)
한우	186 (100.0)	68 (36.6)	118 (63.4)	68 (100.0)	29 (42.6)	39 (57.4)
젖소	108 (100.0)	49 (45.4)	59 (54.6)	49 (100.0)	26 (53.1)	23 (46.9)
양돈	108 (100.0)	51 (47.2)	57 (52.8)	51 (100.0)	28 (54.9)	23 (45.1)
산란계	95 (100.0)	41 (43.2)	54 (56.8)	41 (100.0)	30 (73.2)	11 (26.8)
육계	110 (100.0)	41 (37.3)	69 (62.7)	41 (100.0)	26 (63.4)	15 (36.6)

축종별 영농승계자 확보율



01 | 축산 냄새



02 | 미세 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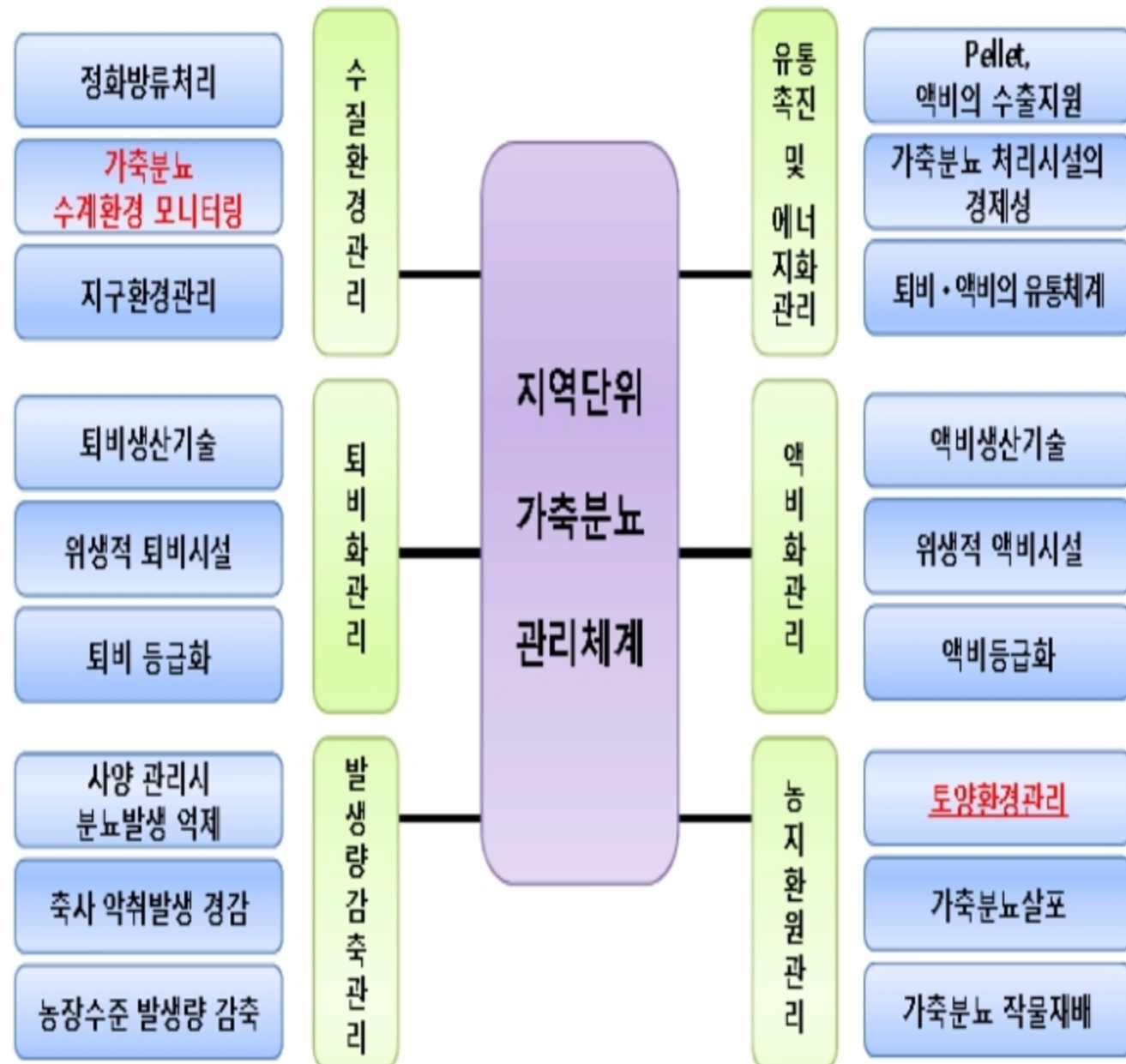


03 | 지구 온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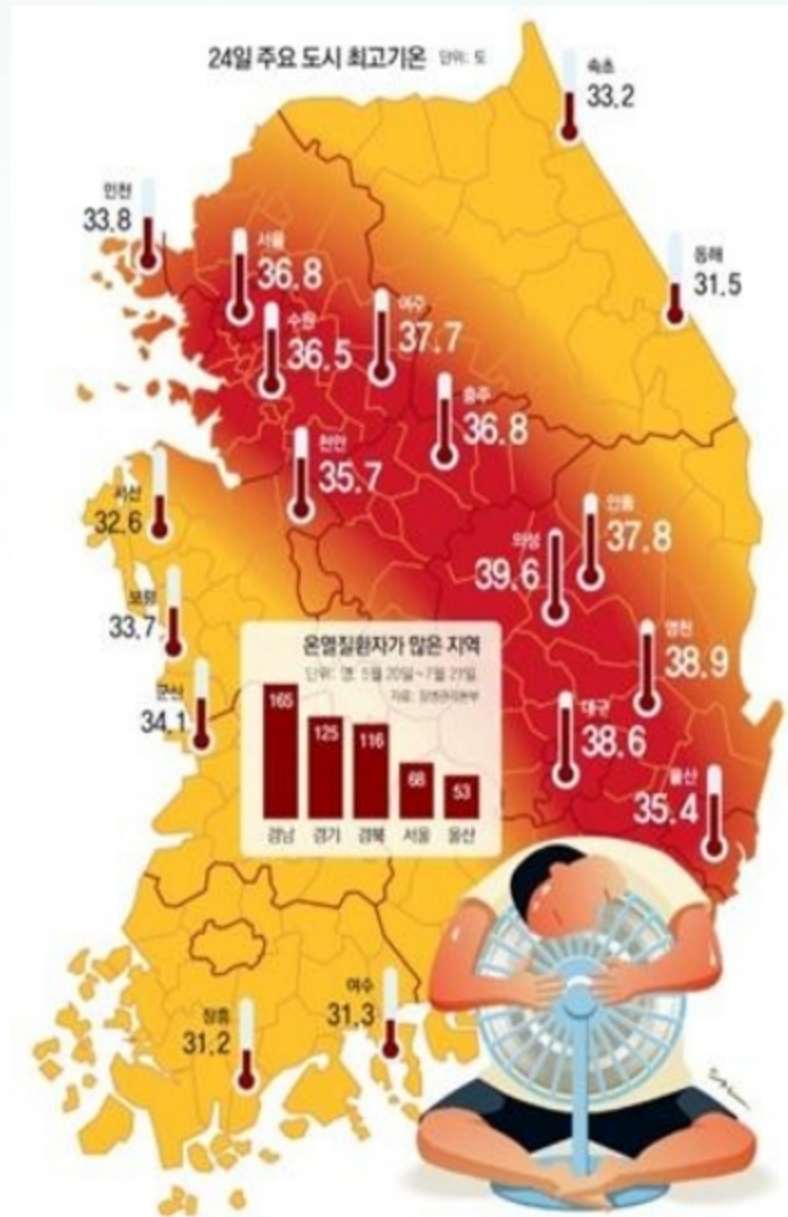


생산환경의 변화(축산업 불신 증가)

- 가축 분뇨, 악취 등의 환경문제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남발되고 있음
- 친환경적인 사육, 경관개선 등 축산에 대한 인식 제고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



분뇨 자원화, 축산시설의 현대화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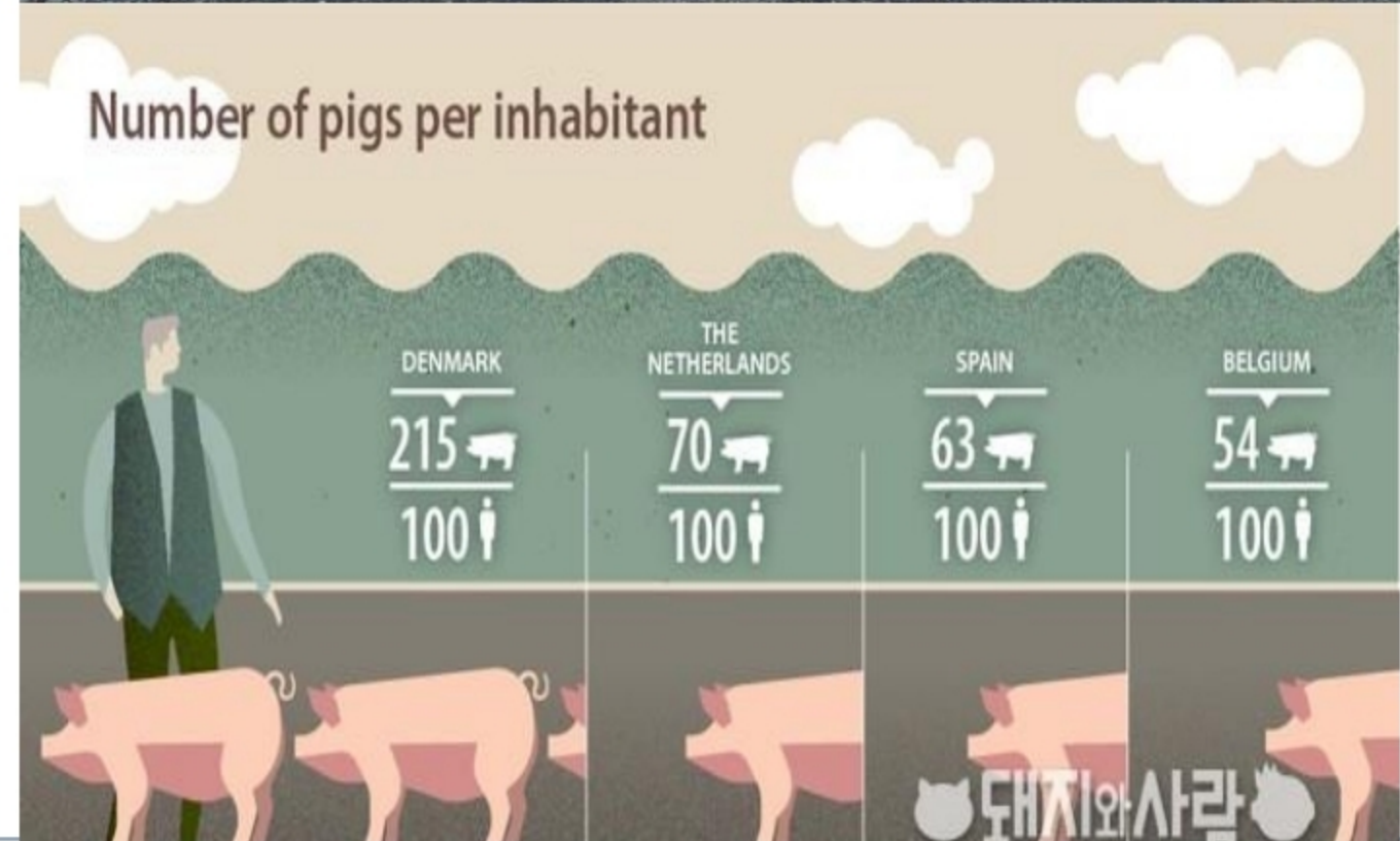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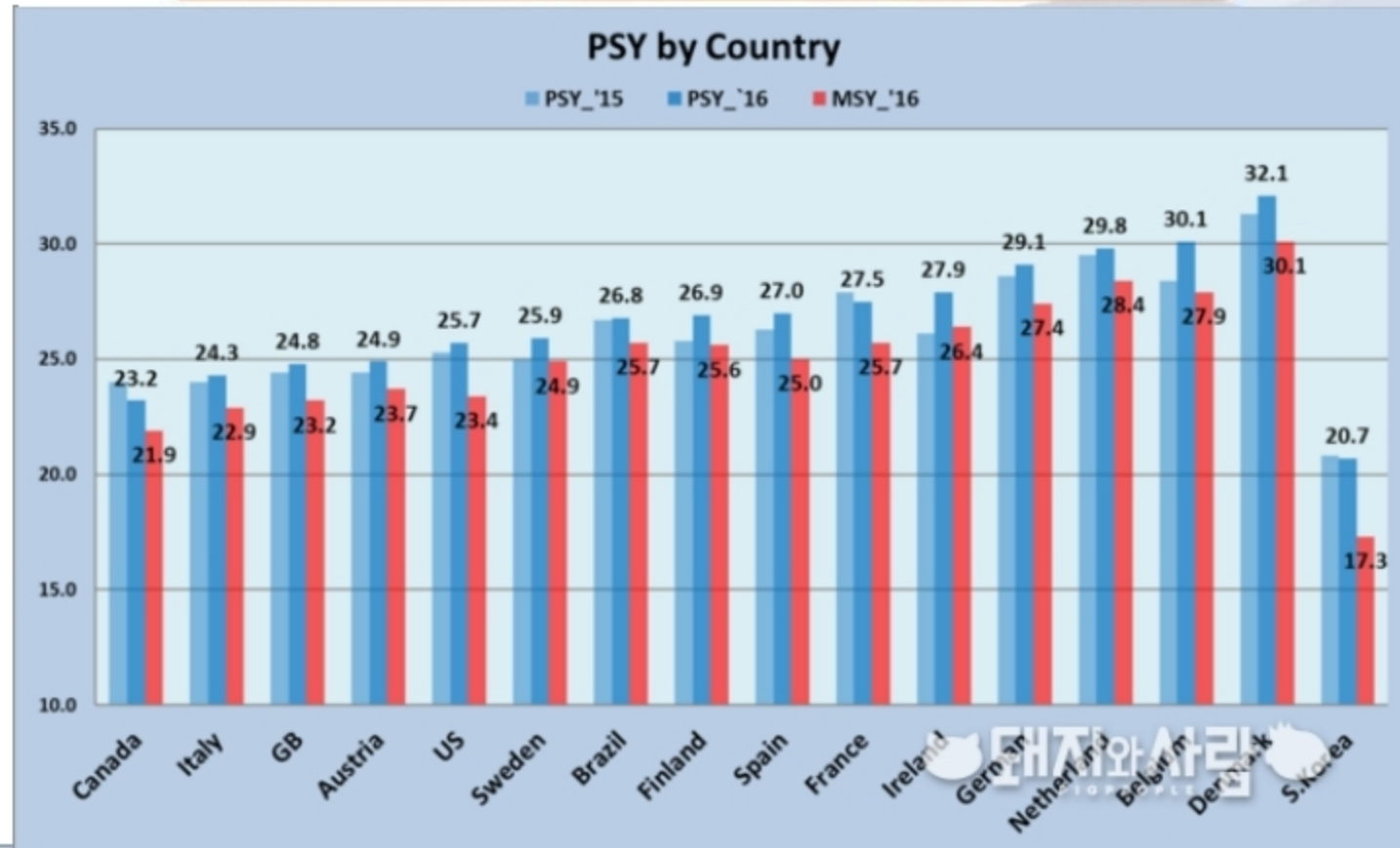


한돈산업은 어디에 있는가 ?

"덴마크의 높은 성적은 양돈기술이 아닌 산업구조!"



덴마크와 네덜란드 등 양돈선진국 MSY는 매년 증가, 한국은 거의 정체



한돈 산업의 불통 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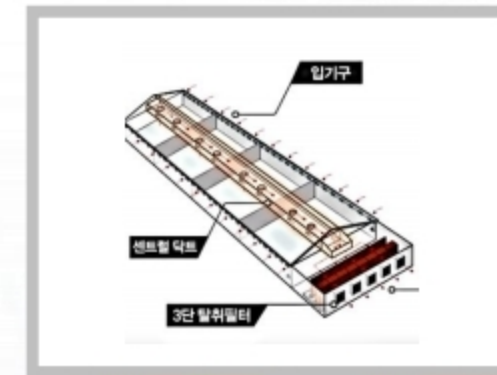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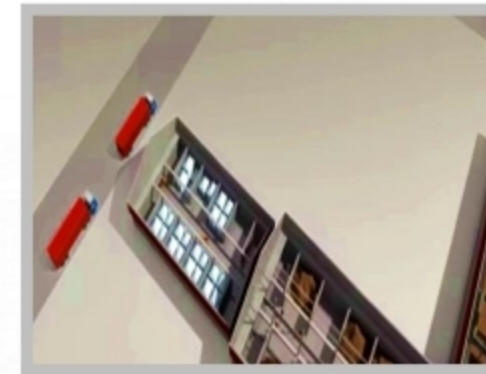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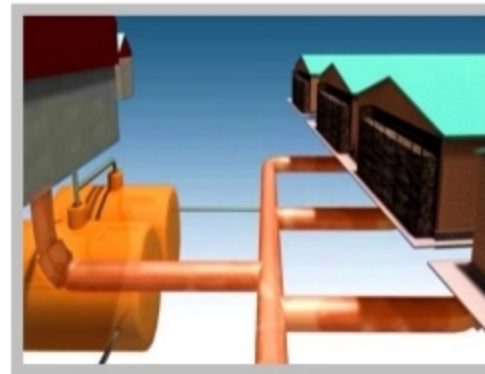


한국환경공단(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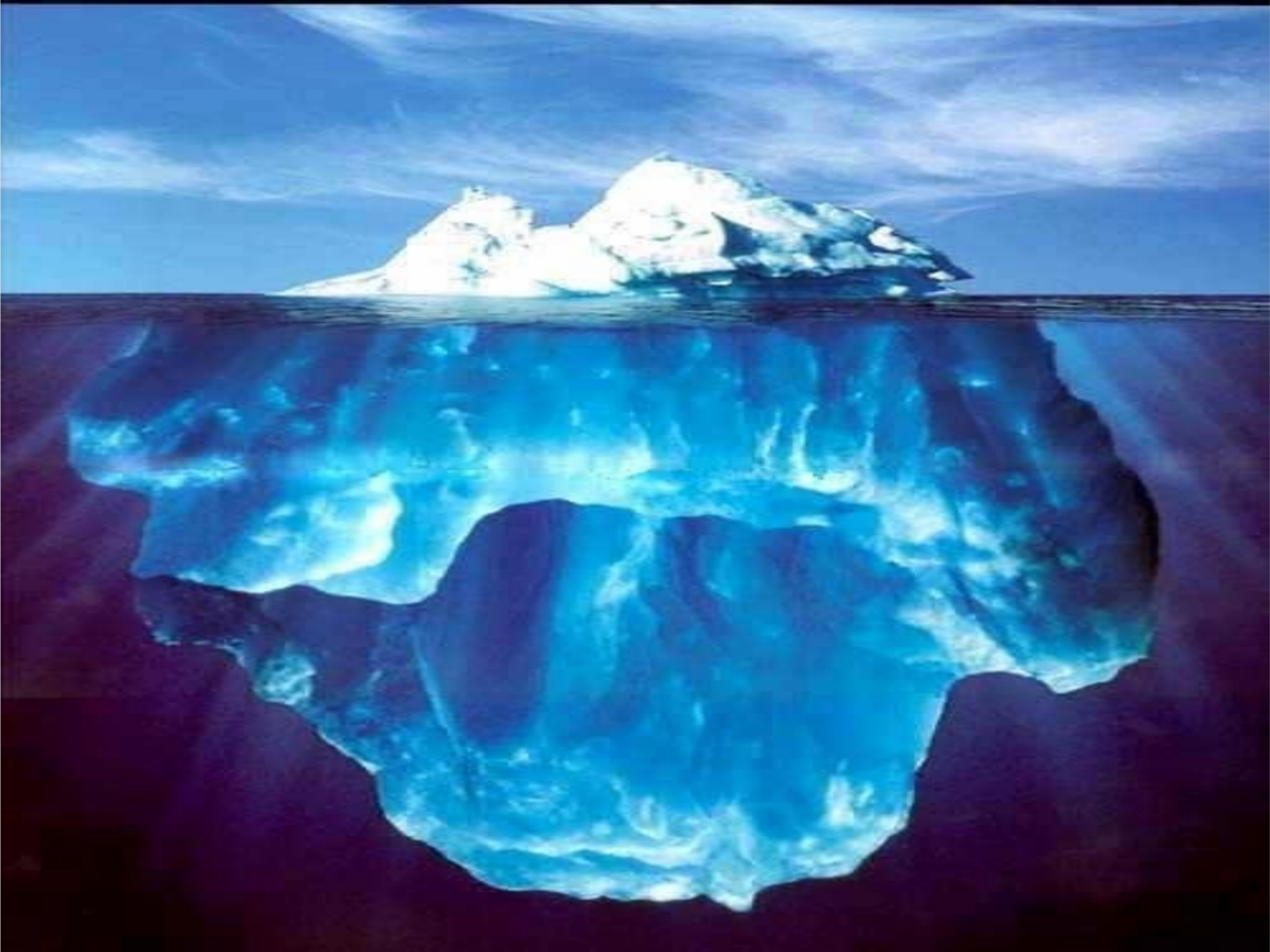
한돈 산업 노력의 현주소

기업형 환경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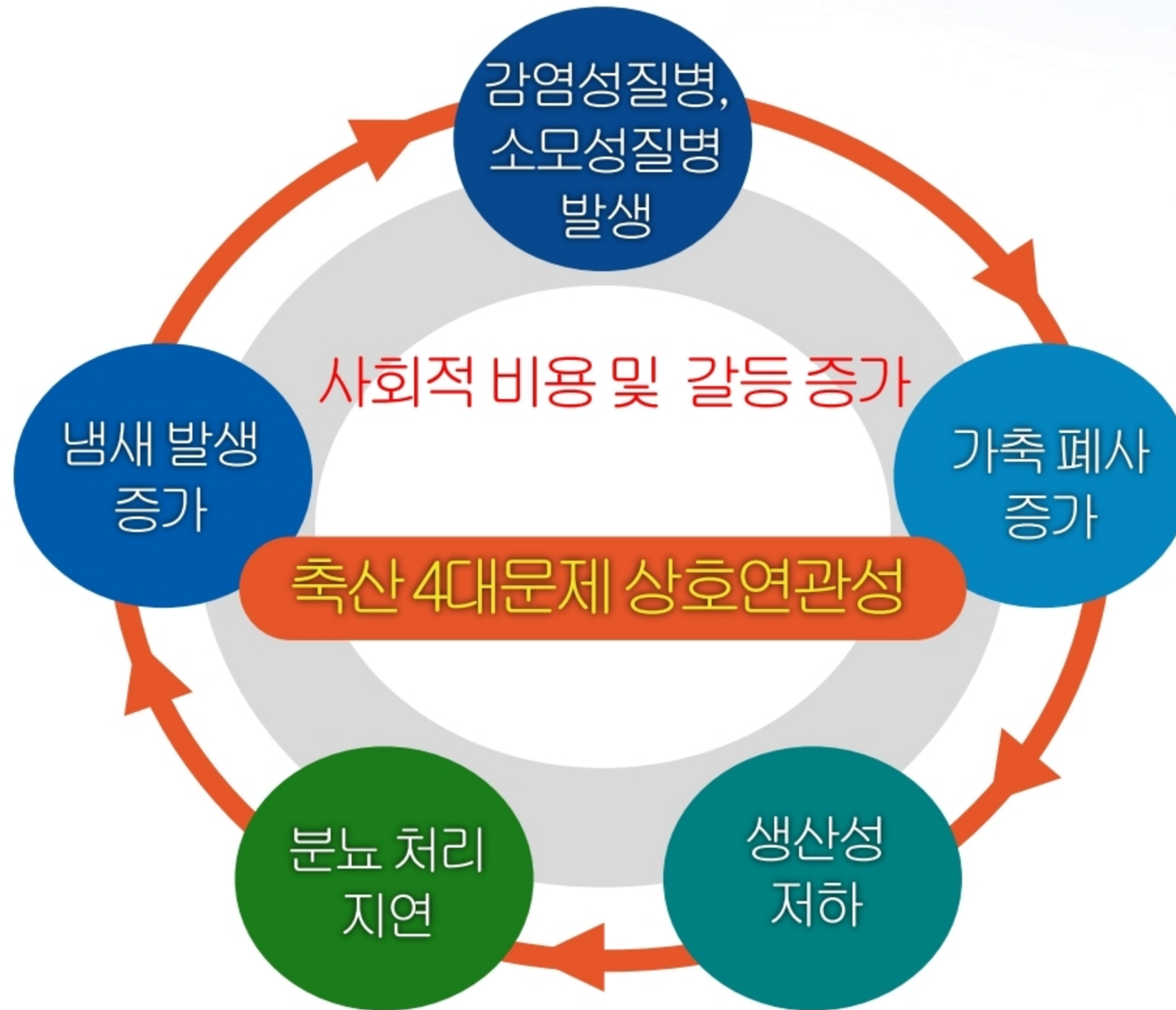


농가형 환경개선





한국 축산(한돈산업)의 불편한 진실의 본질



가축 질병에 따른 사회적 비용

- 구제역 7회 (피해액 3조 3천억원)
- 조류독감 6회 (재정지출 5천억원)
-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축산 냄새 사회적 갈등

- 총 민원의 축산냄새 36%, 1위
- 축산냄새 민원 중 양돈농가 34%, 1위
- 축산냄새저감 및 환경개선 사업 매년 1,500억원 이상 국비 투입

코로나19가 불러온 축산업의 새로운 변화

1) 글로벌 공급체인의 붕괴

chosun.com 국제

한 사람당 세 덩이만 팝니다...美코스트코 매장 고기 부족

입력 2020.04.30 10:34 | 수정 2020.04.30 11:02

美 세계 최대 고기 소비국..트럼프 "도축공장 문 열라" 명령

코로나로 공장 실제 가동률 40~50%에 그쳐

소비자는 고기 없는데, 돼지는 도축못해 대규모 안락사 위기



진심은 정함이다 진심은 다함이다

YTN

"코로나19 여파로 美 돼지 1천만마리 안락사 위기"

Posted : 2020-05-18 14:05

미국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육류 가공처리 시설이 운영에 차질을 빚어 돼지 1천만 마리가 시장에 출하되지 못한 채 9월까지 안락사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코로나19가 불러온 축산업의 새로운 변화

2) 소비 패러다임의 혁신적 변화

코로나 이후 쇼핑 패턴이 달라졌다...“시대 흐름 맞게 유통정책 바꿔야”

등록 : 2020-07-21 17:18 수정 : 2020-07-22 02:37

2020 신유통트렌드와 혁신성장 웨비나

‘온라인’
목표
대한
혁신
를
논의
이후
‘정신’
지는
연구
생존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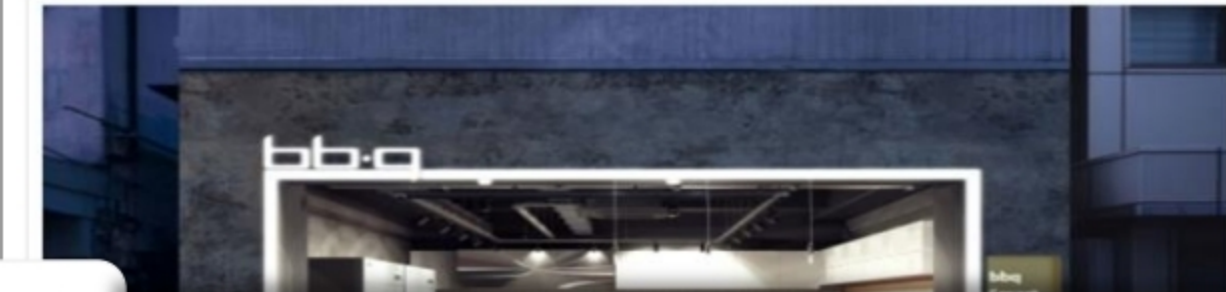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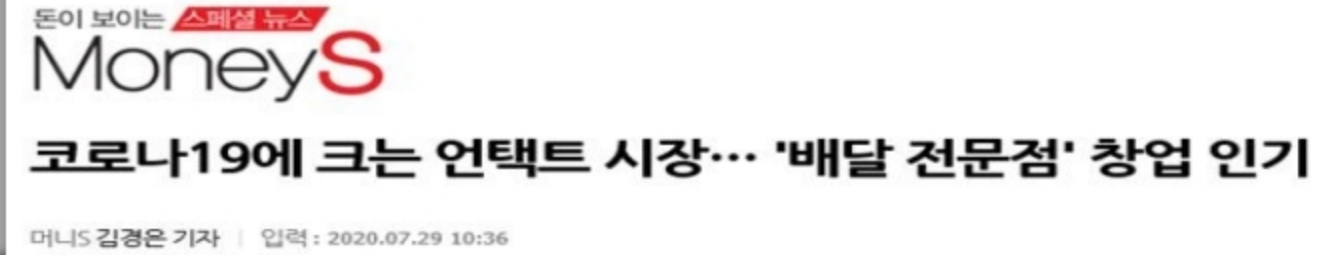
‘축산업계 마켓컬리’ 떠오른 정육각...초신선 돼지고기 당일배송에 인기

한국경제

입력 2019.07.01 16:25 | 수정 2019.07.01 16:25 | 지면 B7

오후 10시, 내일 아침식사 재료로 필요한 1등급 이상 돼지고기를 바로 살 수 있는 곳이 있을까. ‘정육각’ 사이트에 들어가 주문하면, 다음날 새벽에 택배로 받아볼 수 있다.

신선식품의 새벽배송 시대를 연 ‘마켓컬리’의 정육점 버전인 셈이다. 정육각은 도축한 지 4일 미만인 돼지고기만을 판매해 축산물의 생명인 신선도를 보장한다는 전략을 펴고 있는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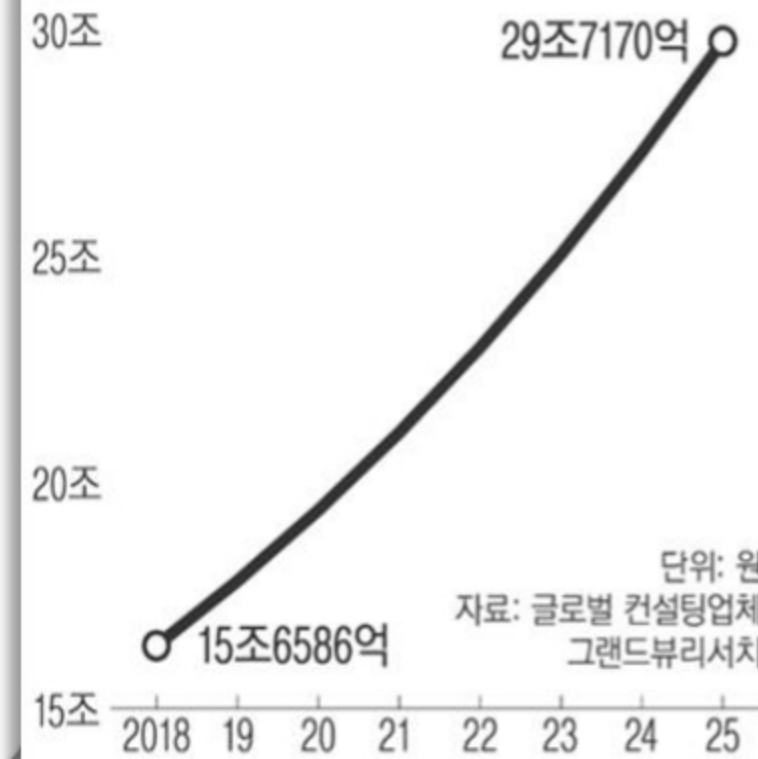
경향비즈

‘대체육’ 시장 급성장세...‘비건’ 소비자 선택 폭 넓어진다

입력 : 2020.05.07 21:07 | 수정 : 2020.05.07 21:08

- 롯데마트, 비건 양념 순살 후라이드 등 ‘고기 대신’ 6종 내놔
- 식물성 햄버거·소시지에 라면까지...“5년간 50% 이상 클 것”

전 세계 비건(완전 채식) 시장 규모 추이



코로나19가 불러온 축산업의 새로운 변화

3) 글로벌 식량위기설 확산 국가 식량자급률 확보 노력

news 1 뉴스
KOREA

유엔식량농업기구 이사회 열려...코로나 사태속 식량수급 협력 공감대

정부, 6일부터 5일간 진행되는 FAO 화상회의 참석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2020-07-09 11:00 송고

국제연합(UN) 식량농업기구(FA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식량수급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합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일부터 5일간 FAO 이사회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농업 분야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머니투데이

한국의 식량자급률 46.7%, 국경폐쇄가 부른 식량위기설

VIEW 192,949 | 2020.04.13 04:30

담쌓고 식량막는 세계, 코로나 공포가 부른 식량 전쟁

코로나19(COVID-19)가 글로벌 먹거리 공급 사슬에도 그림자를 드리웠다. 글로벌 팬데믹(대유행) 이후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나라 간 이동이 제한되자 세계 곳곳에서 식량안보를 명분으로 한 곡물 수출 제한조치를 발동했다. 글로벌 식량 전쟁이 가시화한 것이다.

식량전쟁 여파로 자급도가 떨어지는 가공식품 원재료와 축산 사료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우리 정부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기회와 위기-

식품소비 행태 및 외식문화의 변화

<홈쿠팡: 집밥 문화 확산>

<로컬 푸드, 국내산 축산물 소비 증가>

<HMR(가정간편식) 급격한 소비 증가>

<대체육 시장의 급격한 증가>

<비건 현상의 증폭 ; 코로나 사태, '육식 공포증' 키워;>

근본적 위기를 맞이한 **한국 한돈산업 대안 모색**

초고령화사회, 신규 축산업 진출 차단, 청년층의 기회 감소

지역과의 불통요인 과중, 성장후퇴, 지식기반 붕괴
신규 축산업 정상적 진입 기회 박탈, 청년층 진입 장벽 강화
소비자의 축산물 요구 다변화 대응력 부족

청년세대의 지역 이탈 가속화, 급속한 축산업 여건 악화로 지역경제 동력상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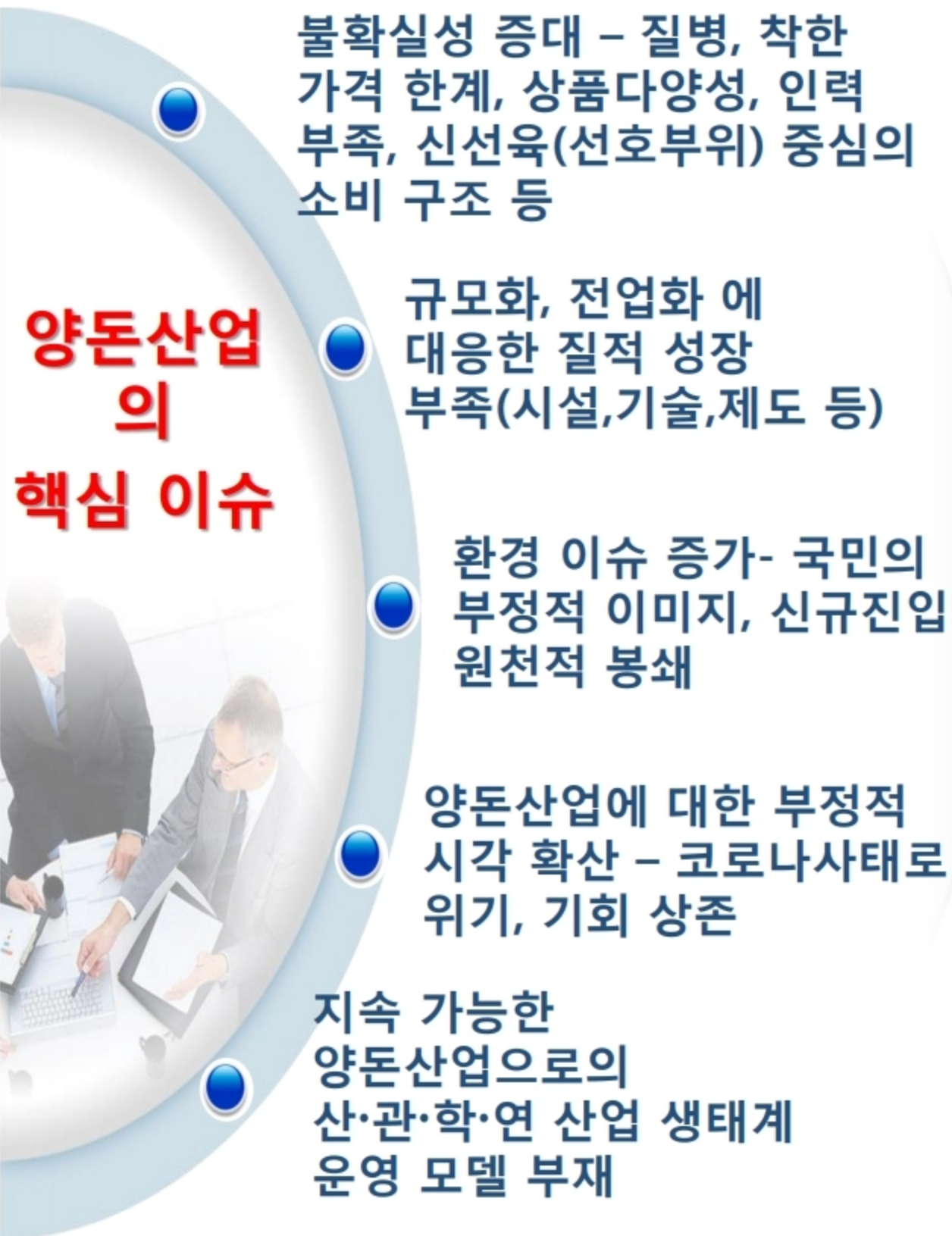
포스트코로나 이후 :
축산업의 리모델링, 청장년 일자리 전환의 혁신 기회 ?
= 디지털 그린 뉴딜을 농축산업과 농촌에 담자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축산업의 대응 과제 ?

소비자와 지역 산업으로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축산산업의 리모델링 기회로 활용 !

- 축산식품 안전성 확보(인수공통질병원 차단 등)
- 축산식품의 안정적 공급(작업장 및 생산단계의 질병 오염 확산)
- 소비자 소비 저항 대응 축산물의 착한가격 (생산비, 물류 유통 비용) 수단 강구
- 축산물 소비 다양성 대응 및, 신유통 채널 대응력 확보
- 비대면 기반의 생산 시스템(품질유지, 품질 정보공유 등)
- 신유통 시스템기반의 안전성 확보(오염방지, 신선도 유지 등)
- 포장(환경에 대한 고려 필요, 친환경적인 포장재, 포장기술 등)
- 지속가능 축산업에 대한 인식 제고 (지역과의 불통요인 해소)
- 건강한 축산식품 소비 인식 개선 (안티축산, 비건, 대체육 대응)
- 빅데이터, ICT 기반의 축산산업 신생태계 구축으로 일자리 창출

지속가능 한돈산업으로의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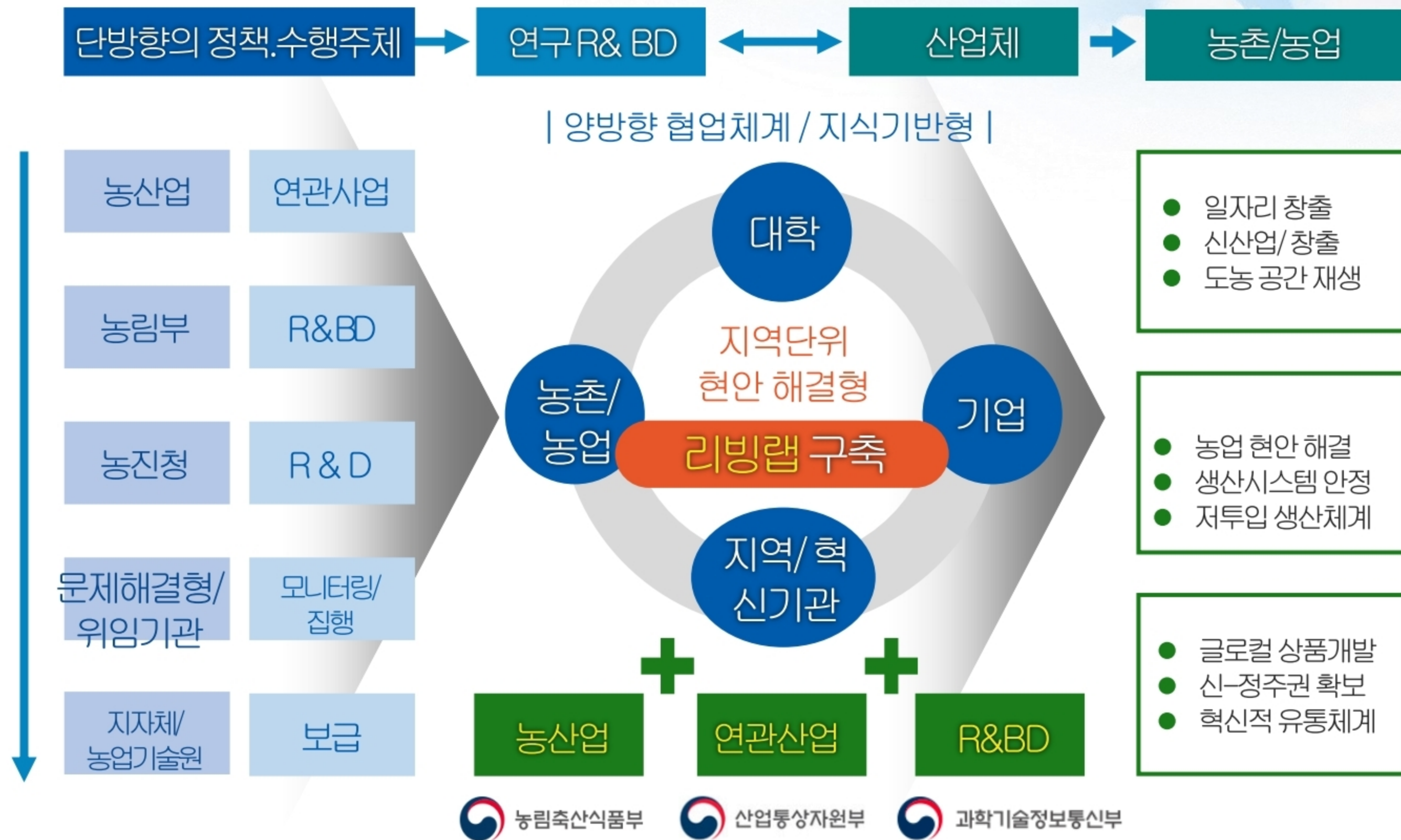
1 한돈 산업의 가치 재정립 - 공적 가치 정립 (**공적산업**)

2 **과학기술 발전에 비해** 낮은 생산성 극복 (시스템과 제도, 공공적 접근)

3 환경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지역사회 상생 (**공동체적 책무성**)

4 **소비자 이슈에** 대한 방향성 정립 - 코로나 등 대외 여건에 능동적 대응을 통한 시스템 개혁

5 공감과 소통의 방안 - **기업가 정신과 시대정신** (**사회적 책무성**)



“새로운 축산 패러다임에 대한 시대적 요청 키워드”

과학과 산업 생태계 기반의 분뇨, 약취, 질병, 생산성 문제 등 축산 4대 현안 극복을 통한 새로운 시스템 절실

가축 건강

→ 구제역 등 가축 질병 예방의 근본적 대책 필요성 대두

축산 환경

→ 분뇨 처리, 약취 등 깨끗한 축산에 대한 사회적 요구

축산물 안전

→ 수입 시장 확대, 소비 수준의 고급화 등 차별화된 안전
축산물 소비자 욕구 증대

동물복지

→ 시장의 다변화에 따른 차별화를 위해 새로운 개념의
다양한 동물복지 패러다임 필요

시장 경쟁력

→ 이베리코 등 고품질 돈육 시장 수입 개방에 따른
시장 경쟁력 강화 절실 (선호부위 중심에서 변화)



0 미래축산포럼

- 김민경교수(유통소비분과)
- 양철주교수(친환경축산분과)

0 강정화회장 (한국소비자연맹)

0 김성윤기자 (조선일보 편집국)

0 허재영교수 (전북대학교)

0 최승민 연구원 (전북대학교)

Thank you!

감사합니다.